

S.P.A

Sun PhuQuoc Airways Inflight Special Edition #5

예술적 감각으로
즐기는 휴식

WHEN TRAVEL
BECAME AN ART FORM

사파
대자연이 빛은
경이

BEAUTY IN ITS
PUREST FORM





Sun Elite
City

Introducing
새로운 시작

Sun Festo Town

QUANG NINH'S FIRST
High-rise Onsen complex

광닝성 최초의
프리미엄 고층 온천 복합단지

Hotline: 085 850 8989 | Website: sunelitecity.com.vn





화요일

특별한 세상이 열립니다

15% * 할인 혜택

코드 입력: **TRAVELWORLD**

서울 / 타이베이 / 홍콩 ✈ 푸꾸옥 노선

2026년 5월 26일 - 6월 30일 | (*)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S.P.A

Sun PhuQuoc Airways Inflight Special Edition #5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 기내 매거진 스페셜 에디션 #5

공상출판사 콘텐츠 총괄
INDUSTRY AND TRADE EXECUTIVE BOARD
PUBLISHING HOUSE

발행 책임자
대표이사 - 편집장
쯔엉투히엔 TRƯƠNG THU HIỀN

콘텐츠 총괄 | CONTENT DIRECTION
응우옌 만 꾸안 NGUYỄN MẠNH QUÂN
동 티 응옥 아인 ĐỒNG THỊ NGỌC ÁNH

편집
응웬 반 탕 NGUYỄN VĂN THẮNG

제작 총괄 | PRODUCTION MANAGER
판 튀 중 PHAN THÚY DUNG
응엔마이란 NGHIÊM MAI LAN

본점: 하노이시 응이에도동 팜반동길 655
전화번호: 024 3934 1562
팩스: 024 39387163

광고 매니저 | ADVERTISING MANAGER
팜 티 마이 호아 NGUYỄN THIÊN TRANG

홈페이지: <http://nxbconghuong.vn>
이메일: nxbct@moit.gov.vn

디자인 기획 총괄 | DESIGN DIRECTION
응우옌 카인 주이 NGUYỄN KHÁNH DUY

출판 협력사: TIMEVISION., JSC
하노이 끄어남동 하이바쥬길 13
썬시티빌딩 3층

발행 부수 2,000부; 판형 20.5 × 25cm, 인쇄 QAVIETNAM., JSC
주소: 하노이 프엉리엣동 프엉리엣길 41

출판계획 등록번호 1459-2026/CXBIPH/7-56/CT (2026년 04월 17일)
ISBN: 978-632-630-543-2, 2026년 인쇄 및 납본 완료

신규 노선

푸꾸옥 ⇒ 방콕



판매 시작 | 첫 운항
2026년 6월 11일 | 2026년 8월 8일

운항 스케줄

편명	운항 노선	운항 횟수	출발	도착
9G701	PQC-BKK	매일 운항	10:35	11:55
9G702	BKK-PQC	매일 운항	13:10	14:30

Contents

10 SPOT

APEC 2027

- 18 푸꾸옥의 ‘휴양형 병원’ | *Phu Quoc's First 'Resort Hospital' Elevates Healthcare and Strengthens APEC 2027 Preparations*
- 22 APEC 2027: 대규모 숙박 인프라 구축 | *Phu Quoc builds large-scale 'accommodation ecosystem' for APEC 2027*

FOCUS

- 26 대자연이 빚어낸 서정 | *Poetry of the highlands*
- 36 사파 원시의 아름다움 | *Sa Pa Beauty in its Purest Form*
- 42 고원의 런웨이 | *The High-altitude Runway*

EXPERIENCE

- 48 인도, 편견을 넘어 만나는 자부심 | *India Beyond Expectations*
- 58 석양의 마을 | *Where the Day Ends in Beauty*
- 62 골프와 산, 자연을 함께 즐기는 시간 | *Golf's greatest Mountain settings*

FEATURE

- 65 예술적 감각으로 즐기는 휴식 | *When Travel Became an Art Form*
- 70 예술로 역사를 서사하는 베트남 | *A story of Vietnam, carved into the coast*
- 74 구름 속 마을의 ‘오트 쿠티르 아틀리에’ | *The Couture Palace in the clouds*
- 80 화려한 여관 | *The Capital's most theatrical stay*
- 82 귀족들의 대학 | *The fictional campus of Phu Quoc*
- 86 한 편의 사랑 이야기처럼 | *A Coastal Love Story*



표지 | ON THE COVER
장소 | Location: Sun World Fansipan Legend
사진 | Photo: Nguyễn Minh Tú

CULTURE

- 90 효(孝)의 계절, 마음을 기댈 곳 | *The season of Filial Love*
- 96 푸꾸옥에서 만나는 독일 맥주의 향연 | *A Taste of Bavarian Beer on the shores of Phu Quoc*

S.P.A

- 100 5성급 서비스의 기준을 세우다 | *The five-star philosophy*
- 104 기장 레장남: “조종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보이지 않는 책임이 시작됩니다” | *Captain Le Giang Nam: “Behind the cockpit door are invisible pressures”*
- 108 기내 인테리어 표준화 | *Standardizing fleet interiors*
- 112 서울과 마주한 순간 | *Touching Seoul*
- 116 SPA News

118 LASTLOOK



SUN PROPERTY
THÀNH VIÊN TẬP ĐOÀN SUN GROUP

BLANCA CITY

BY SUN GROUP

UNPARALLELED FREENOLD BEACHFRONT RESIDENCES

at Bai Sau, Vung Tau, Ho Chi Minh City

호찌민시 봉파우 바이사우에 자리한 유일무이한 프리홀드 해변 레지던스



Welcome letter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 대표이사
응우옌 마인 쁘

Mr. Nguyễn Mạnh Quân
Chief Executive Officer
Sun PhuQuoc Airways

독자 여러분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푸꾸옥에 머물고 있거나, 설레는 마음으로 섬을 향해 가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섬 푸꾸옥은 처음 찾는 이에게는 새로운 설렘을, 다시 찾는 이에게는 변함없는 그리움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이번이 첫 여행일 수도, 다시 찾은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푸꾸옥은 늘 같은 이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한 번의 만남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매력, 그리고 떠난 뒤에도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셋 타운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키스 브리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준 높은 공연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한편, 2,000km 이상 떨어진 베트남 북서부의 계단식 논에는 초록빛 벼가 바람에 물결치고 있습니다. 드넓은 고원과 몽족의 전통 악기 소리는 오래도록 이어져 온 대자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또 다른 하늘 아래에는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의 새로운 취항지인 인도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이곳은 마치 지상낙원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행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여행의 가치는 단순히 어디를 향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선과 감동,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경험이야말로 여행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ear Readers,

As you hold this magazine in your hands, chances are you have either arrived in Phu Quoc or are on your way to one of the most beautiful islands on the planet. Perhaps this is your first visit, or perhaps you have been here before and found yourself drawn back to Pearl Island once again.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Phu Quoc possesses a unique charm that makes one visit feel far from enough.

And while Sunset Town is lighting up the night sky with dazzling fireworks and buzzing with world class performances beside the iconic Kiss Bridge, more than 2,000 kilometers away in Vietnam's Northwest Highlands, rice terraces are turning a vibrant shade of green as the growing season reaches its most beautiful stage. There, among the limestone plateaus and mountain villages, the melodies of the H'Mong flute continue to tell timeless stories of the great wilderness.

In another corner of the world, India, a new destination on the Sun PhuQuoc Airways network, awaits with its own irresistible allure. Ancient yet vibrant, it is a land of remarkable contrasts, where breathtaking landscapes seem to belong to a paradise on earth.

Wherever your journey may take you, what makes travel memorable is never only the destination itself, but also what we bring home with us: a new perspective, a new emotion, and a deeper connection with both the world around us and ourselves.

Throughout every journey, your trust and companionship remain the greatest privilege for all of us at Sun PhuQuoc Airways. Thank you for choosing to fly with us and for allowing us to be part of the memories you create along the way.

Warm regards. 🌻

NO VO TEL

DANANG PREMIER
HAN RIVER

DANANG'S URBAN RETREAT BY HAN RIVER

한강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뜨고, 다채로운 미식을 즐기며, 깊은 휴식을 선사하는 스파와 마사지로 몸과 마음을 채워보세요. 노보텔 다낭 프리미어 한 리버에서의 모든 순간은 온전한 휴식으로 이어집니다.



노보텔 다낭 프리미어 한 리버

다낭시 하이짜우구 박당 36-38

T. +84 (0) 2363 929 999 | E. H8287@accor.com

www.novotel-danang-premier.com

오감을 깨우는 빛의 예술 세계, 바나힐

올 여름, 썬 월드 바나힐은 세계적인 수준의 새로운 콘텐츠로 방문객들에게 한층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중심에는 ‘기원 (Nguồn Cội)’을 주제로 선보이는 루미에르 라이트 아트(Lumiere Light Art)가 있습니다. 약 800㎡ 규모의 인터랙티브 빛 예술 공간인 루미에르 라이트 아트는 ‘영원의 빛의 고리’, ‘일곱 빛깔 해파리’ 등 7개의 테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광전자 센서 기술과 몰입형 예술 연출이 어우러져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과 색채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아 있는 예술 작품으로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에릭 카이저(Eric Kayser)가 프랑스 마을 중심에 베트남 두 번째 매장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해발 1,487m에 자리한 유럽풍 공간 속에서 천연 사워도우 발효종으로 만든 크루아상과 팡 오 쇼콜라의 고소한 풍미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천천히 발효하고, 가장 맛있을 때 선보인다’는 철학 아래 완성된 에릭 카이저의 베이커리는 깊고 풍부한 맛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A MULTI SENSORY UNIVERSE AT BA NA HILLS

→ This summer, Sun World Ba Na Hills continues to introduce a series of world class experiences for visitors. Taking center stage is Lumiere Light Art, an 800-square-meter immersive light art space themed “Origins”. Across seven distinctive zones, including Eternal Light Circle and Seven Color Jellyfish, interactive performances combined with advanced photoelectric sensor technology transform every step into a living work of art.

Ba Na Hills has also welcomed the second Vietnam location of renowned French bakery Maison Kayser, nestled within the heart of the charming French Village. Set amid a European inspired atmosphere at an elevation of 1,487 meters, the irresistible aromas of croissants and pain au chocolat, crafted using natural sourdough fermentation and Maison Kayser's philosophy of “Slow Fermentation, Fast Service”, have quickly won over food lovers. 🍞



세계유산의 밤을 밝히는 빛의 향연

부이 페스트 하롱 야시장은 세계유산 도시 하롱의 밤을 대표하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명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등대를 무대로 펼쳐지는 3D 맵핑 아트 쇼 ‘용운경회(龍雲慶會)’는 이곳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정적인 건축물이었던 등대는 빛과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거대한 무대로 변신해, 관람객들을 하롱만의 유구한 역사 속으로 안내합니다. 용과 기린의 전설이 깃든 하롱만의 탄생 신화부터 번성했던 번돈 무역항, 백등강 전투의 웅장한

기상, 그리고 구름 위에 자리한 엔프 불교 성지에 이르기까지, 빛과 영상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서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러한 몰입형 콘텐츠는 약 100여 개의 먹거리 부스와 붉은 돛단배 수상 공연, 바이짜이 해변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입장권은 음료 1잔이 포함된 10만 동으로, 방문객들은 현대적인 축제의 분위기와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습니다.

LIGHTING UP THE HERITAGE BAY WITH 3D MAPPING

→ VUI-Fest Ha Long Night Market has become one of the most vibrant nighttime attractions in the heritage city of Ha Long. Its appeal has been elevated further with the debut of “Long Van Khanh Hoi”, a spectacular 3D mapping light show projected onto the iconic Lighthouse architecture.

More than a static landmark, the Lighthouse is transformed into a towering pillar of light, guiding audiences through layers of history, from the legends of dragons and qilins shaping the bay, to the bustling trading port of Van Don, the heroic Bach Dang victories, and the spiritual heights of Yen Tu Mountain.

The multi sensory experience is complemented by nearly 100 food kiosks, sailing boat water performances, and dazzling nightly fireworks over Bai Chay Bay. For just VND 50,000,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 a contemporary festival atmosphere unlike any other. ✨





베트남 최초의 대규모 복합 스포츠 파크

5월 말, 썬 어반 시티 내에 공식 개장한 닌빈 썬 스포츠 시티는 썬그룹이 조성한 베트남 최초의 대규모 복합 스포츠 파크로, 개장과 동시에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들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 22ha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이곳은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입지와 함께 7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총 58개의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41면 규모의 실내 피클볼 코트는 국제 PPA 투어(PPA Tour) 대회 개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단지의 대표 시설로 손꼽힙니다. 썬 스포츠 시티는 전문 선수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000여 그루의 나무가 조성된 녹지 공간과 1.9km 길이의 러닝 트랙, 그리고 올림픽 오륜기와 닌빈 지역의 전통 도이탐 북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 조형물은 스포츠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풍경을 완성합니다.

AMONG VIETNAM'S LARGEST MULTI SPORT PARKS



→ Officially opening at the end of May within Sun Urban City, Sun Sports City Ninh Binh, the first large scale multi sport park in Vietnam developed by Sun Group, has quickly become a favorite destination for sports enthusiasts. Spanning 22 hectares in a highly connected location, the complex features 58 courts and training facilities catering to seven popular sports. Its standout attraction is a covered pickleball complex

with 41 courts built to standards suitable for hosting international tournaments within the PPA Tour system.

Beyond competitive sports, the park also serves as a green urban retreat, featuring more than 1,000 trees, a 1,900-meter running track, and a bronze sculpture inspired by the Olympic rings and the traditional Doi Tam drum, blending Olympic spirit with local cultural heritage. 🌞





Discover the Valley. Return to Yourself. 산과 계곡이 품은 쉼, 나에게로 돌아가는 여정

Hilton Quang Hanh Onsen Resort is the first Hilton onsen property in Southeast Asia, a valley sanctuary of discovery and restoration, nestled within an ancient valley of limestone peaks and forest in Northern Vietnam.

At its heart lies a rare saline mineral spring, among the highest concentrations of bromine in the world. These earth-warmed waters flow into Yoko Onsen Quang Hanh, our public bathing complex complimentary for every guest - and into private onsen baths in each room, so restoration is always close at hand.

Inspired by Japanese bathing traditions, the experience extends beyond the water. Structured bathing rituals, refined Japanese dining, considered design and a curated program of wellness activities, from poolside aqua cardio to morning Pilates, shape each day into something unhurried and whole. The body unwinds. The mind follows. And somewhere between the warm mineral waters and the stillness of the valley, you find your way back to yourself.

힐튼 광한 온천 리조트는 힐튼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이는 온천 리조트입니다. 베트남 북부의 유서 깊은 석회암 산맥 사이, 깊은 계곡에 조용히 자리한 이곳은 자연의 숨결을 따라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여정을 선사합니다.

리조트의 중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롬 농도를 자랑하는 희귀한 천연 염분 온천수가 흐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따뜻한 온천수는 모든 투숙객에게 열려 있는 요코 온천 스파와 객실마다 마련된 프라이빗 온천탕으로 이어져, 머무는 모든 순간을 깊은 휴식과 치유로 채워줍니다.

일본 온천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곳의 여정은 물 위에서 시작되지만, 그 너머로 깊이 이어집니다. 온천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과 섬세한 일본 미식,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그리고 수중 유산소 운동부터 매일 아침 이어지는 필라테스까지, 몸과 마음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하루를 천천히 채워갑니다. 몸은 서서히 이완되고, 마음은 잔잔한 평온을 되찾습니다. 따뜻한 온천수와 계곡의 고요함이 스며드는 순간, 어느새 본래의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Plan your stay at:

당신을 위한 휴식을 지금 만나보세요.

[Hilton.com/quanghanhonsenresort](https://hilton.com/quanghanhonsenresort)

힐튼 광한 온천 리조트

@hiltonquanghanh

Hilton.
QUANG HANH ONSEN
RESORT

갯바만에 펼쳐진 즐거움의 무대

부 이 페스트 갯바와 선 바바리아 갯바의 등장은 하이퐁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만 중심부 해안가에 자리한 이곳은 다채로운 거리 축제와 매력적인 공연, 화려한 불꽃놀이가 어우러져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된 부이 페스트 갯바는 선 바바리아 갯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완성합니다. 약 700석 규모를 갖춘 썬 바바리아 갯바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함께 시원한 수영장, 아름다운 프라이빗 비치와 갖춘 복합 공간입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프리미엄 맥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축제의 열기 속에 머물며, 밤이 내려앉은 갯바만의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푸른 바다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의 순간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갯바 여행의 새로운 즐거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N ENTERTAINMENT PARADISE ON CAT BA BAY

→ The simultaneous arrival of VUI-Fest Cat Ba and Sun Bavaria Cat Ba has brought a lively new energy to tourism in Hai Phong. Located in a prime waterfront position overlooking the central bay, the destination is filled with color and excitement through a series of street festivals, captivating performances,

and spectacular fireworks displays.

Positioned as an open cultural and entertainment destination that comes alive well into the evening, VUI-Fest Cat Ba connects seamlessly with Sun Bavaria Cat Ba, a beachfront beer restaurant with an impressive capacity

of nearly 700 seats, complete with a swimming pool and a beautiful private beach.

Visitors exploring Cat Ba can now enjoy premium beer, immerse themselves in a festive atmosphere, and admire the enchanting beauty of the bay after dark. 🌟

뉴 월드 푸꾸옥 리조트, 개관 5주년 기념 특별 프로모션

뉴 월드 푸꾸옥 리조트는 개관 5주년을 맞아 다양한 혜택을 담은 특별 프로모션과 다채로운 고객 경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히 리조트는 ‘5 Nights of Joy’ 패키지를 통해 더욱 풍성한 휴식을 제안합니다. 해당 패키지에는 ▲5박 예약 시 1박 무료 제공 ▲가든 풀 빌라 기준 오후 5시까지 레이트 체크아웃 ▲웰컴 어메니티 5종 제공 ▲썬 월드 혼돈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 ▲투숙당 50달러 상당의 다이닝 크레딧 제공 등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프로모션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예약 가능하며, 투숙 기간은 2026년 5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푸꾸옥 남서부에 위치한 뉴 월드 푸꾸옥 리조트는 아름다운 캄비치를 품은 열대 휴양 리조트입니다. 총 366채의 프라이빗 풀빌라는 전통 초가지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조성됐으며, 전용 해변과도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의 레스토랑과 바, 16개의 트리트먼트룸을 갖춘 스파,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 길이 120m 규모의 야의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휴식과 미식, 액티비티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푸꾸옥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리조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NEW WORLD PHU QUOC RESORT CELEBRATES ITS FIFTH ANNIVERSARY WITH EXCLUSIVE OFFERS

→ New World Phu Quoc Resort is marking its fifth anniversary with a collection of special experiences and exclusive offers for guests.

The resort has introduced the “5 Nights of Joy” package, which includes a complimentary fifth night, late check out until 5:00 p.m. for Garden Pool Villas, five welcome privileges upon arrival, round trip Sun World Hon Thom Cable Car tickets, and a US\$50 dining credit per stay. The offer is available for bookings made until June 30, 2026, for stays between May 3 and October 31, 2026.

Located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Phu Quoc Island, New World Phu Quoc Resort overlooks the famous Kem Beach and features 366 thatched roof villas, each with its own private pool and just steps away from a secluded stretch of beach.

Guests can enjoy five distinctive restaurants and bars, a spa with 16 treatment rooms, a modern fitness center, and a 120-meter outdoor swimming pool. It is a destination where every member of the family can relax, reconnect, and create meaningful memories in harmony with nature. 🌿



썬그룹 소속 레스토랑 4곳, 미쉐린 가이드 선정

2026년 6월 4일, 하노이 아스콧 웨스트레이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쉐린 가이드 베트남 2026 발표 행사에서 라 메종 1888은 올해도 미쉐린 1스타를 유지하며 베트남 미식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썬그룹이 투자한 인터컨티넨탈 다낭 선 페닌슐라 리조트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럭셔리 미식 여행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하노이의 카펠라 하노이 역시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3개의 레스토랑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호텔로서 위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히바나 바이

코키는 4년 연속 미쉐린 1스타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백스테이지 (Backstage)와 이자카야 바이 코키(Izakaya by Koki)는 미쉐린 셀렉티드(Michelin Selected)에 선정되며, 미쉐린이 추천하는 레스토랑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미쉐린 가이드 베트남 2026에는 총 11개의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신규 2곳), 72개의 빙 구르망(Bib Gourmand) 선정 업장(신규 11곳), 그리고 110개의 미쉐린 셀렉티드 레스토랑(신규 9곳)이 포함됐습니다.

FOUR SUN GROUP RESTAURANTS RECOGNIZED BY MICHELIN

→ At the Michelin Guide Vietnam 2026 ceremony held at Ascott Tay Ho Hanoi on June 4, La Maison 1888 once again cemented its place in Michelin Guide Vietnam history by retaining its prestigious one Michelin Star, reaffirming the position of InterContinental Danang Sun Peninsula Resort, developed by Sun Group, as one of Vietnam's leading luxury dining destinations.

In Hanoi, Capella Hanoi further strengthened its reputation as the only hotel in Vietnam to have three restaurants recognized by Michelin. Among them, Hibana by Koki successfully retained its one Michelin Star for the fourth consecutive year. Meanwhile, Backstage and Izakaya by Koki once again earned places in the Michelin Selected category, highlighting them as restaurants recommended by Michelin inspectors.

The Michelin Guide Vietnam 2026 selection features a total of 11 one Michelin Star restaurants, including two new additions, 72 Bib Gourmand establishments with 11 newcomers, and 110 venues listed in the Michelin Selected category, including nine new entries. 🌟





SUN Phu Quoc
AIRWAYS

VISA

Visa로 결제하고 더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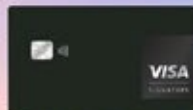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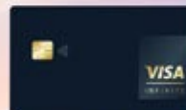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

우선 체크인 서비스

지금 예약하기



전체 이용약관은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세요



혜택 기간: 지금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전체 이용약관은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세요

APEC 2027 개최를 앞두고
푸꾸옥이 국제적인 관광·휴양
도시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인프라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채워졌습니다. 바로
썬그룹 인터내셔널 병원입니다.

푸꾸옥의 ‘휴양형 병원’



푸꾸옥 남부 핵심 관광지인
안터이 중심부에 위치한
썬그룹 인터내셔널
병원은 ‘휴양형 병원’ 콘셉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리조트
단지과 관광·엔터테인먼트 시설,
핵심 인프라와 인접한 입지를 갖춘
이 병원은 건강 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
디자인과 풍부한 자연 채광, 쾌적한
공간 구성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편안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약 1만㎡, 약 100병상
규모의 썬그룹 인터내셔널 병원은

9개 핵심 진료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과·외과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원의 경쟁력은 첨단 의료
장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3.0테슬라 MRI, 수 초 만에
전신 촬영이 가능한 512슬라이스
스펙트럴 CT,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중재 시술을 지원하는 필립스
아주리온 DSA 시스템 등 최신 의료
기술을 도입해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병원은 푸꾸옥 최초로
심혈관 중재 시술과 뇌졸중 응급
치료를 현장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푸꾸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응급 의료
대응 역량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썬그룹 인터내셔널 병원은 약 150
명의 전문 의료진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운영 시스템은 국제



기준에 맞춰 구축되어 응급 상황과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골든타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썬그룹 인터내셔널 병원의 개원은 푸꾸옥의 정주 여건과 관광 인프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섬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육지로 이송해야 했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병원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APEC 2027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푸꾸옥에 있어 썬그룹

인터내셔널 병원은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는 물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대한 전문 치료, 신속한 응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제 대표단과 기업인, 고급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썬그룹 인터내셔널 병원이 푸꾸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건강과 휴식을 결합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치과, 의료 미용, 재활 치료, 통합 건강관리 등 전문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면 이러한 서비스 역시 푸꾸옥 관광 경험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푸꾸옥의 눈부신 성장 속에서 썬그룹 인터내셔널 병원의 등장은 또 하나의 인프라 확충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관광객들이 휴식과 즐거움, 새로운 경험을 누리는 것은 물론, 건강과 안전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여행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관광과 휴양, 의료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미래, 썬그룹 인터내셔널 병원은 푸꾸옥이 세계적인 관광·휴양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Phu Quoc's First **‘RESORT HOSPITAL’**

ELEVATES HEALTHCARE AND STRENGTHENS APEC 2027
PREPARATIONS

As Phu Quoc advances its ambition to become a world-class tourism destination and prepares to host the APEC 2027 summit, a critical piece of infrastructure has officially been completed: Sun Group International Hospital .



Located in central An Thoi, adjacent to key resort, entertainment, and infrastructure hub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island, the facility has been developed under a “resort hospital” model – one that raises the healthcare experience to an entirely new standard. From its architectural design alone, the hospital stands apart from traditional medical facilities, featuring a contemporary aesthetic and abundant natural light that help foster a sense of comfort and relaxation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Spanning nearly 10,000 square meters (approximately 107,600 square feet) and accommodating nearly 100 beds, the hospital offers nine key specialties, ranging from general internal medicine and surgery to intensive care, diagnostic imaging, pediatrics, laboratory services, and anesthesiology. At the heart of the facility is a suite of state-of-the-art medical technologies, including an AI-integrated 3.0 Tesla MRI, a 512-slice spectral CT scanner capable of full-body imaging in seconds, and a Philips Azurion DSA system for cardiovascular and stroke interventions.

The hospital is also the island’s first medical facility capable of performing on-site cardiovascular and stroke interventions – a critical capability for a destination that welcomes millions of visitors each year.

Beyond technology, the hospital has assembled a team of nearly 150 highly qualified medical professionals, supported by an advisory board

of leading industry experts. Its operational framework is built 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esigned to optimize the “golden hour” in emergency response and treatment.

As Phu Quoc gears up for APEC 2027, the hospital is viewed as a vital asset in strengthening the island’s capacity to host international events. Its 24/7 emergency services, ability to handle cardiovascular crises and strokes, and rapid-response capabilities will substantially reinforce “medical security” for international delegations, business leaders, and high-profile travelers.

Notably, Sun Group International Hospital is expected to help lay the groundwork for the fast-growing global wellness tourism sector. Looking ahead, specialized services such as dentistry, cosmetic and medical aesthetics, rehabilitation, and holistic wellness are expected to integrate seamlessly into the island’s resort offerings. 🌞

대규모 숙박 인프라 구축

썬그룹은 푸꾸옥 전역에 걸쳐 럭셔리 호텔부터 서비스드 레지던스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을 확충하며 대규모 숙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PEC 2027을 앞두고 수만 명에 달하는 국제 대표단과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수준의 숙박 수용 역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혼돈 섬에서 약 4,000실 규모의 숙박 시설이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아코르와 에니스모어의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브랜드가 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이는 리소스 푸꾸옥이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 2,000실 규모의 객실과 함께 오션뷰 스위트, 프라이빗 빌라 등을 갖춘 이 리조트는 푸꾸옥 럭셔리 관광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라이브 푸꾸옥, 이비스 스타일스 푸꾸옥,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푸꾸옥, 목시 호텔 푸꾸옥 등 글로벌 호텔 브랜드들도 혼돈 섬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제 브랜드 호텔들의 잇따른 개관은 APEC 2027을 앞두고 푸꾸옥이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빠르게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개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든 썬그룹은 대규모 프로젝트 2건을 추진하며 푸꾸옥의 숙박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약 1만 2,500실 규모의 호텔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새롭게 공급될 전망입니다.

특히 붉은모래해변(Bãi Đất Đỏ) 일대에 조성되는 해안 복합 호텔 단지는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APEC 대로를 따라 들어서는 이 프로젝트는 15개 동의 고층 건물과 약 6,500실 규모의 객실로 구성되며, 5개 글로벌 호텔 운영 그룹 산하

13개 프리미엄 호텔 브랜드가 집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 콘래드, W 호텔 등 베트남에 처음 선보이는 럭셔리 호텔 브랜드들의 입점도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썬그룹은 옹판산 생태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숙박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대표단과 전문가, 해외 관광객들이 장기간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숙박 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숙박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썬그룹이 푸꾸옥에 공급할 숙박 시설은 총 약 1만 6,500실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고급 숙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푸꾸옥의

관광객 수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APEC 2027 개최 지원을 넘어, 푸꾸옥의 장기적인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썬그룹의 개발 프로젝트가 개별 시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컨벤션 시설, 관광·엔터테인먼트, 해양도시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생태계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APEC 2027 이후에도 이러한 인프라는 푸꾸옥이 세계적인 관광·휴양·MICE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핵심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FESTIVAL ISLAND

Nha Trang's **SLEEPLESS
DOWNTOWN**

나트랑의 잠들지 않는 다운타운



Phu Quoc builds large-scale 'ACCOMMODATION ECOSYSTEM' for APEC 2027

With APEC 2027 on the horizon for Vietnam's largest island, Sun Group i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a vast hospitality ecosystem in Phu Quoc, encompassing luxury hotels and serviced apartments designed to accommodate tens of thousands of international delegates and visitors.

By late 2026, the developer will have introduced approximately 2,000 hotel rooms on Hon Thom Island – part of the Phu Quoc archipelago. Leading this expansion is Rixos Phu Quoc Resort, marking the Asian debut of Accor and Ennismore's all-inclusive luxury brand. The resort will feature nearly 1,500 rooms, including ocean-view suites and private villas.

At the same time, a lineup of internationally renowned brands will make their debut on Hon Thom, including **TRIBE Phu Quoc**, **Ibis Styles Phu Quoc**, **Fairfield by Marriott Phu Quoc**, and **Moxy Hotels Phu Quoc**. The coordinated launch of these global hotel brands underscores the rapid growth of the Pearl Island's hospitality ecosystem in the lead-up to APEC 2027.

Following this initial phase, Sun Group is set to accelerate development with two mega-projects, adding approximately 12,000 hotel rooms and serviced apartments to the Phu Quoc market.

The centerpiece of this expansion is a beachfront hotel complex at Bai

Dat Do. Located along APEC Boulevard, the development comprises 17 high-rise towers with nearly 7,000 rooms, bringing together 13 premium hotel brands managed by five global hospitality groups. Several luxury brands, including SO, Conrad, and W Hotels, are also expected to make their Vietnam debut here.

Alongside its growing resort portfolio, Sun Group is investing in serviced apartments and tourism infrastructure within the Nui Ong Quan eco-urban area. The project is designed to provide flexible, long-stay accommodation options for international delegates, experts, and visitors.

In total, Sun Group is projected to deliver more than 17,000 keys in Phu Quoc between 2026 and 2027,

marking a quantum leap in the island's hospitality capacity amid rising demand for luxury accommodation. Industry observers note that this substantial investment extends well beyond APEC 2027, laying a long-term foundation for Phu Quoc's strategic tourism development.

Notably, Sun Group's projects are not standalone developments but part of an integrated ecosystem encompassing transportation, convention facilities, entertainment venues, and coastal urban areas. Beyond APEC 2027, this extensive infrastructure network is expected to support Phu Quoc's ambition of becoming a world-class destination for tourism, resort experiences, and MICE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



FOCUS

가을은 베트남 서북부 산악지대가 가장 눈부신 황금빛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층층이 이어진 계단식 논은 마치 대지 위에 수놓은 예술 작품처럼 빛나고, 그 사이로 삶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랜 세월 흐르는 동안 지켜온 문화의 원류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깊은 시간의 흔적으로 남아 이 땅만의 특별한 매력을 더합니다.

This autumn, let SPA take you to the highlands of Northwest Vietnam, where terraced rice fields are at their most breathtaking, where the stories of mountain communities echo through the valleys, and where layers of ancient culture await discovery. Don't forget to pack a selection of fashion pieces that capture the untamed spirit of the highlands.



대자연이 빛어낸 서정

글: LAM | 사진: NGUYỄN SƠN TÙNG

수 천 년 동안 높은 산자락과 고원, 맑은 계곡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서북부 산간 지역 사람들은 거칠고 야성적인 자연 속에서도 소박하고 단아한 삶의 결을 이어오며, 그 안에서 묘하게도 서정적인 삶의 풍경을 빚어왔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과 문화는 세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전승되어, 노년에서 후대로 이어지는 ‘구전(口傳)의 시간’ 속에서 층층이 쌓여온 기억처럼 깊고도 농밀한 문화의 지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사진가 응우옌 썬 똥의 시선을 빌려 들어가면, 몽, 자오, 타이, 따이, 농, 로로 등 다양한 민족들이 거대한 자연의 캔버스 위에 하루하루 생생한 색채를 덧칠하듯 살아가는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사진을 예쁘게 찍기 위해 찍지 않습니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찍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베트남 북부 산악 지역의 소수민족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밤새 이어지는 결혼식

기억으로 수놓아진 듯한 전통 의상
느리지만 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점차 희미해져 가는 하나의 문화를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기억이며, 사람이며, 존재 그 자체입니다.”

사진가 응우옌 썬 똥

(2020년 터키에서 개최된 오르한 홀딩 국제사진대회에서 자유 흑백 사진 부문 특별상 수상)

POETRY *of the* HIGHLANDS

BY LAM | PHOTOS BY NGUYEN SON TUNG

For generations, the people of Vietnam's northwestern highlands have made their living on mountain slopes, among limestone plateaus and beside cool flowing streams. In doing so, they have created a way of life that is at once rugged and simple, wild and deeply poetic.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this cultural heritag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Elders pass down traditions to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creating

layer upon layer of cultural memory that continues to captivate those who encounter it.

Join photographer Nguyen Son Tung, whose life has long been intertwined with the Northwest, on a journey into this world, where the H'Mong, Dao, Thai, Tay, Nung, Lo Lo, and many other ethnic communities continue to add vibrant brushstrokes to the majestic canvas of Vietnam's mountains.



"I do not take photographs to make things beautiful. I photograph them so they will not be forgotten. For many years, I have traveled and lived alongside ethnic communities in the mountains of northern Vietnam. I have witnessed... weddings that last through the night traditional clothing embroidered with memory people who live slowly, yet profoundly What I do is not simply photography. It is the preservation of a culture that may one day fade away. I believe photography is more than an image. It is a memory. It is people. It is existence."

Nguyen Son Tung – Special Award, Monochrome Open Category, Orhan Holding International Photography Competition, Türkiye, 2020





몽족의 켄 소리

이 곳은 하장성 라오사 마을에 사는 미 홍 가족의 집입니다. 집 한켠에 놓인 낡은 재봉틀은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이며 마치 자신의 삶 전체를 꿰매듯 성실히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세월의 바람과 안개를 견뎌온 황토벽 집 안에서, 가족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화롯가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 식탁에는 갓 수확한 듯 선명한 초록빛의 산채, 은은하게 훈연 향이 배어 있는 건조 고기, 그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옥수수 술 한 잔이 정성스럽게 차려집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노인은 미 홍과 함께 빗바랜 은빛 켄을 집 한가운데로 가져옵니다. 화롯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그 황금빛 주황색 불빛은 주름 깊게 패인 노인의 얼굴을 비추며, 마치 그의 인생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새겨 넣는 듯합니다.

그 순간 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때로는 낮게 가라앉고, 때로는 높이 솟구치며, 기쁨과 슬픔을 오가듯 흐르는 그 소리는 산맥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또 때로는 산의 영혼이 속삭이는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봄 축제의 날이면 이 켄 소리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 젊은 남녀가 마음을 전하는 매개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색이 아니라, 사람과 영혼의 세계를 이어주는 숨결이며, 세대를 이어 공동체의 기억과 가치를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끈이기도 합니다.

The sound of the H'MONG KHENE

This is the home of Mi Hong in Lao Xa Village, Ha Giang. An old sewing machine sits quietly in the corner, evoking a strange sense of nostalgia. Someone once sat there, patiently pressing the pedal, guiding every stitch as though sewing together the fabric of a lifetime.

Inside the earthen house that has weathered countless years of mountain winds and mist, the

family gathers around the fire and a generous meal prepared for visiting guests. On the table are freshly picked mustard greens from the garden, fragrant smoked meat, and cups of golden corn wine shimmering in the firelight.

After dinner, Mi Hong and her grandfather bring out a weathered khene. The fire continues to glow, casting warm light across the elder's deeply lined face, as though illuminating

the stories of an entire lifetime.

The khene begins to sing. At times low and contemplative, at times bright and joyful, its melodies drift through the house like mountain winds moving across limestone peaks. For the H'Mong people, the khene is the language of love during spring festivals, a way for young men and women to express feelings that words cannot. More than a musical instrument, it is a spirit, a bridge between people and the spiritual world, and a thread connecting generations through traditions that time cannot erase. →



“자오도” 족의 결혼식

오늘은 사파의
신부 떤 마이와
신랑 리 따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화려한 전통 자수
(동파, thổ cẩm)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북과 나팔이 울려
퍼지고, 가족과 친족, 하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사파의 “자오도” 족에게
있어 북과 나팔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결혼식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결혼식은 단순한 부부의 기쁨을
넘어, 가족과 씨족,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잇는
신성한 의례입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에서,
떤 마이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신랑
측 행렬은 북과 나팔을 울리며
신부 측 행렬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돌게 됩니다.
여기에는 노인부터 아이, 신부
들러리, 그리고 신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의식은 ‘묶음
의례(구속 의례)’로 불리며,
신부와 신부 집안을 하나로
묶고 이제 그녀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후 ‘매듭을 푸는’
과정에서 행렬은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신부 앞에서는 멈추게
되는데, 이는 그녀만큼은
영원히 새 가족에 속하게
된다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A Red Dao WEDDING

Today is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lives of bride Tan May and groom Ly Ta in Sa Pa. Surrounded by vibrant brocade fabrics, accompanied by the sounds of drums and horns,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guests gather together to celebrate their union.

For the Red Dao people of Sa Pa, drums and horns are more than music. They are the soul of the wedding. Likewise, a wedding is far more than a celebration between two people. It is a sacred ceremony that strengthens bonds between families, clans, and the wider community.

During the bridal procession, Tan May cannot immediately enter her husband's home. She must wait for an auspicious moment. The groom's musicians then circle the bride's family procession, passing elders, children, bridesmaids, and finally the bride herself. This ritual is known as "tying the cord." It symbolizes the bond between the two families and signifies that the bride now belongs to her new household. When the procession retraces its path to "untie the cord," it stops at the bride, for she alone will remain tied to her new family forever.





평두(平頭) 다오족 머리장식

평두(平頭) 다오족이라는 이름은 이들이 착용하는 독특한 머리장식에서 유래합니다.

머리 위가 평평한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된 이 모자는 그 자체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장, 뚜옌팡, 라오까이, 라이쩌우 등 베트남 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평두 다오족은 특히 이 독창적인 전통 의상과 머리장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자는 은(銀)을 비롯해 사람의 머리카락, 대나무의 일종인 장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제작됩니다. 얇게 가공된 금속 조각들은 마치 빗살 장식이나 비녀처럼 다듬어져,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며 약 15cm 길이와 7cm 폭의 직사각형 형태를 이룹니다. 모자 위의 문양에는 거미, 세 갈래 꽃무늬 등이 새겨져 있으며, 다오족 다우 평 사람들은 이를 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합니다.

이 부족의 소녀들은 14세에서 16세 사이가 되면 전통 머리장식을 착용하게 되며, 이는 곧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상징합니다. 이후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머리장식은 평생 동안 그녀와 함께하며 삶의 일부로 이어집니다.

The distinctive headdress of the FLAT HEAD DAO

The Flat Head Dao take their name from the distinctive rectangular headdress worn flat across the top of the head. Found primarily in Ha Giang, Tuyen Quang, Lao Cai, and Lai Chau provinces, this Dao subgroup is known for its elaborately decorated traditional attire, particularly its unique headwear.

Each headdress is crafted with extraordinary care using silver, bamboo, and hair. Thin pieces of metal are shaped and polished like ornamental pins before being arranged in overlapping layers

to form a rectangular structure measuring approximately 15 centimeters long and 7 centimeters wide. The patterns decorating the headdress include spiders, three-petaled flowers, and symbols that the Flat Head Dao associate with stars.

Girls begin wearing the traditional headdress between the ages of fourteen and sixteen, marking their transition into adulthood and signaling that they are eligible for marriage. After marriage, the headdress accompanies them throughout their lives.





라오사 마을 은세공 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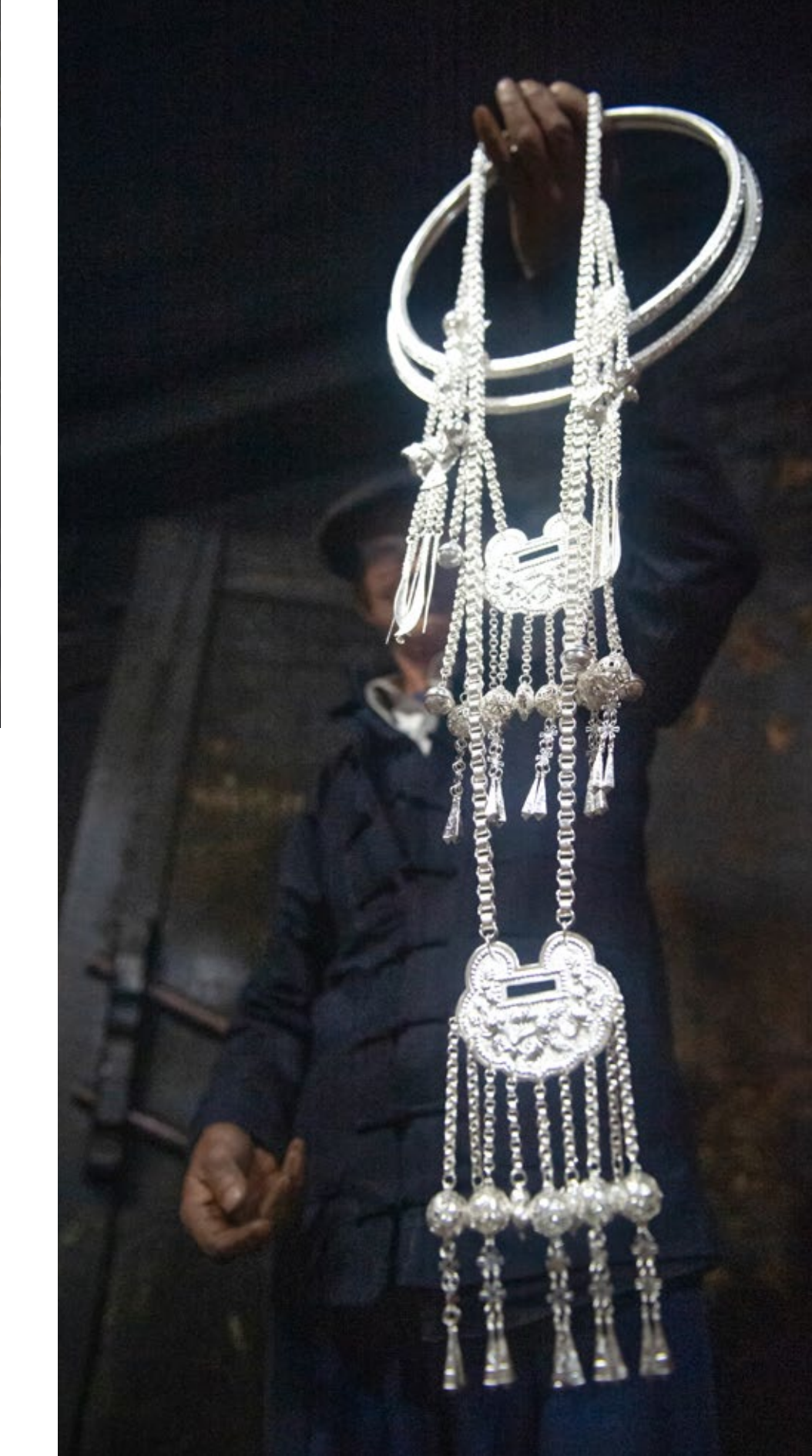
하 장성 송라도시
중심부에서 약 5km
떨어진 산악 지대에
위치한 라오사 마을은 석회암 산자락
위에 자리한 작은 공동체로, 약 103
가구의 몽(H' Mong)족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은세공 전통을 지켜온
무아 세 쌍 가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문의 기술을
전수받은 그는 현재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자녀와 손주들에게
은세공의 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작하는 은 장신구는
독창적이면서도 정교한 조각
기법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은 공예의 제작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은을 녹여 주형에 붓고, 모루 위에서
형태를 잡은 뒤, 문양을 새기고
마지막으로 광택을 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높은
손기술과 집중력,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인내를 필요로 하며, 진정한
장인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수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몽족의 전통에서 은 장신구는
명절이나 의례 때 착용되거나, 딸이
결혼할 때 지참품으로 전해지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무아 세
쌍이 만든 반지, 팔찌, 발찌, 목걸이
등은 이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전통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The silversmiths of LAO XA

Lao Xa Village lies about five kilometers from the center of Sung La Commune in Ha Giang Province. Perched on a rocky mountainside, it is home to just over one hundred H'Mong households. Among them is the family of artisan Mua Se Sinh, one of the few remaining masters preserving the village's traditional silver-engraving craft.

Having learned the trade from his family as a child, Mua Se Sinh, now in his seventies, continues to pass his knowledge to younger generations. His handcrafted jewelry is known for its intricate workmanship and distinctive designs.

Creating a piece of silver jewelry involves many stages, from melting and casting the metal to shaping it by hand and engraving delicate patterns before the final polishing. The process demands patience, precision, and years of practice before an artisan can master the techniques that have made Lao Xa silverwork so highly regarded.

In H'Mong culture, silver jewelry is worn during festivals and important celebrations, and is often given to daughters as part of their dowry. Rings, bracelets, anklets, and necklaces crafted by Mua Se Sinh have become treasured possessions among local families. 🌟

사파 원시의 아름다움



8월부터 10월 사이, 사파는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본래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으로 돌아갑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계단식 논이 만들어내는 풍경, 그리고 연둣빛에서 황금빛으로 천천히 물들어가는 새벽빛 논이 햇살을 머금으며 빛나는 모습이 바로 그 아름다움입니다.

글: 란안; 사진: 즈엉꾸옥히에우, 썬그룹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

계단식 논은 베트남 북서부를 대표하는 독특한 풍경으로, 산악 지대 주민들이 산비탈을 따라 물벼농사를 일구며 만들어낸 삶의 지형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끝없이 이어진 산과 구름 사이로 펼쳐진 논들이 마치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처럼 이어져 있으며, 구름 위로 올라가는 길을 연상시키는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사파의 계단식 논은 최소 200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나먼 북방에서 이주해 온 소수민족들의 이동과 정착 과정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므엥화 계곡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연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고대 암석들 위에서도, 고대인들이 정교하게 새겨 넣은 계단식 논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 이 지역의 오랜 역사와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8월 말에서 10월에 이르는 시기, 사파의 산자락은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들어 갑니다. 수백만 이삭의 벼가 고개를 숙이며 익어갈 때, 들판은 마치 햇살을 길어 올려 짜낸 비단처럼 은은하면서도 찬란한 물결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사파의

황금 들녘에는 벼가 익어가는 향긋한 내음이 마을과 계곡 곳곳으로 번져 스며들고, 어느새 계절은 조용히 ‘사파의 황금 시기’를 완성해 갑니다.

따반(Tà Van)과 따핀(Tà Phìn)은 끝없이 펼쳐진 계단식 논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망 포인트입니다. 아슬아슬한 산비탈과 아득한 계곡 위로 황금빛으로 물든 논들이 마치 산자락을 감싸 안듯 펼쳐지며 장대한 풍경을 이룹니다. 또한 판시판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마치 므엥화 계곡의 계단식 논 위를 날아오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구름이 짙게 드리운 날이면, 산과 들, 계곡이 경계 없이 이어지며 풍경 전체가 한층 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물들어 갑니다.

고산의 시혼(詩魂), 사파의 여인

가을의 사파를 찾는 여정에서, 판시판 산 정상에 올라 크로코스미아의 만개를 마추하는 경험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발 3,143m의 정상에서 판시판은 마치 붉은 노을빛을 한껏 끌어안은 듯, 황련산맥의 장대한 능선 위로



1. 사파의 계단식 논

2. 반 마이 황금
계절 축제



불꽃처럼 타오르는 꽃의 군무를 펼쳐 보입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바라보는 순간부터 산악열차를 지나 구름의 광장과 종탑에 이르기까지, 시선이 닿는 곳마다 꽃은 절벽과 능선을 타고 바다처럼 번져 갑니다.

사파 사람들은 이 꽃을 고산의 ‘시혼(詩魂)’이라 부르며, 때로는 ‘고산의 여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곧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차가운 안개와 거친 햇살을 견디며 끝내 꽃을 피워내는 모습이야말로, 이 땅 사람들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8월이 되면 이곳에서는 크로코스미아 꽃축제가 열리며, 방문객들은 자연스레 그 축제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유려하게 이어지는 전통 민속춤과 꽃에서 영감을 받은 선율의 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처럼 펼쳐지고, 그 순간만큼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잊게 됩니다.

반 마이 황금 계절 축제

벼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계절이 되면, 사파의 따뜻한 공동체 정취와 삶의 온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반 마이의 ‘황금 계절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사파 지역에 살아가는 몽족(사파·디엔비엔), 사포족, 따이족, 자이족, 다오족, 타이족, 하니족 등 7개 민족의 전통 의례와 생활 문화를

생생하게 재현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타이족의 대표적인 풍습인 ‘새 쌀 맛의 의식(Tết cơm mới)’이 전통 그대로 펼쳐집니다. 풍년을 가져다준 신령과 조상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가올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의식입니다.



1. 사파 크로코스미아 꽃축제

2. 반 마이 황금 계절 축제



가장 활기찬 순간은 단연 축제의 마당입니다. 방문객들은 화롯가를 둘러싸고 앉아 밥 짓기, 떡 만들기 등 산간 지역의 삶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체험에 참여합니다. 손끝에서 이어지는 분주한 움직임과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한층 생동감 있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몽족의 전통 피리 소리, 타이족의 떼(Then) 노래, 타이족의 쏘이영(xòe) 춤, 그리고 산과 숲을 울리는 북과 징의 울림이 이어지며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이 모든 소리와 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염원, 그리고 풍요와 행복을 향한 소박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



SA PA

Beauty in its Purest Form

When autumn arrives, Sa Pa resembles a landscape painting brought to life. Terraced rice fields ripple across the mountainsides in shades of gold, transforming the highlands into one of Vietnam's most striking seasonal spectacles.

STORY BY LAN ANH
PHOTOS BY DUONG QUOC HIEU AND VARIOUS AUTHORS

STAIRWAY TO HEAVEN

Terraced rice fields are among the defining landscapes of Vietnam's Northwest. Carved into steep mountainsides by generations of highland communities, they transform rugged terrain into a vast agricultural masterpiece. Viewed from afar, the terraces resemble giant stairways ascending through the clouds.

The terraced fields of Sa Pa are believed to date back more than 200 years and are closely linked to the migration and settlement of ethnic communities in the region. Across the ancient carved stones scattered throughout Muong Hoa Valley, visitors can still find engravings that offer glimpses into the lives and agricultural traditions of the people who shaped this landscape centuries ago.

From late August to October, millions of ripening rice stalks transform the mountainsides into sweeping ribbons of gold. This is Sa Pa's most celebrated season, when the scent of harvest lingers in the air and villages are surrounded by a sea of golden terraces.





1

1. Terraced rice fields are among the defining landscapes of Vietnam's Northwest

2. Golden Season Festival at May Village

3. Crocosmia Flower Festival

Ta Van and Ta Phin offer some of the finest vantage points from which to admire these remarkable landscapes, where terraced fields cascade across steep slopes and into distant valleys. For a different perspective, the Fansipan cable car carries visitors high above Muong Hoa Valley, revealing the full scale of the terraces below. On misty days, when clouds drift between the mountains, the view feels almost otherworldly. It is easy to understand how the landscape earned its reputation as a stairway to heaven.

THE BLOSSOM OF FAITH

A visit to Sa Pa during autumn is incomplete without a journey up Mount Fansipan to see the

crocosmia in bloom. At an elevation of 3,143 meters, Vietnam's highest peak is transformed by sweeping clusters of fiery orange-red flowers that brighten the slopes of the Hoang Lien Son range. From the cable car and mountain funicular to Cloud Yard and the Bell Tower, crocosmia blooms cling to steep mountainsides, bringing vivid color to the dramatic landscape.

Locals often refer to it as the highlanders' muse and the blossom of faith because it continues to flourish despite high altitudes, winter frosts, and harsh mountain weather. In many ways, it reflects the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of the people who call these highlands home.

Visitors arriving in August can also experience the Crocosmia Flower Festival, where traditional dances and performances inspired by the region's flora celebrate one of Fansipan's most distinctive seasonal spectacles.

THE GOLDEN SEASON FESTIVAL AT MAY VILLAGE

To experience the warm communal spirit of the harvest season, visitors can head to the Golden Season Festival at May Village. The festival recreates the traditional customs, rituals, and daily life of the ethnic communities that call the Northwest home, including the Hmong of Sa Pa and Dien Bien, the Xa Pho, Tay, Giay, Red Dao, Thai, and Ha Nhi.

One of the festival's highlights is the New Rice Celebration, an important tradition of the Tay people that is brought to life by Sa Pa's local Tay community. The ceremony is both an expression of gratitude for a successful harvest and a prayer for prosperity in the seasons ahead.



The festivities continue with a lively program of activities inspired by traditional agricultural life. Visitors gather around open hearths to watch and take part in competitions such as rice cooking and pounding young green rice (cốm).

Time seems to stand still as guests lose themselves in the melodies of the Hmong khene, the traditional then fo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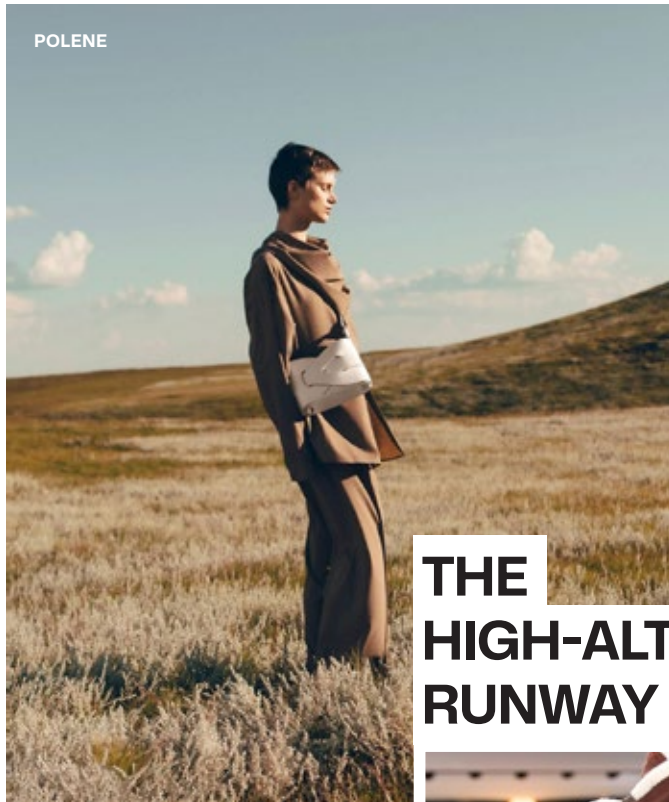
songs of the Tay people, the graceful xoe dances of the Thai, and the resonant drums and gongs that echo through the mountains. Each melody and movement carries the spirit of the highlands, expressing both a deep connection to the land and the enduring hopes of local communities for prosperity, happiness, and a good life. 🌞



고원의 런웨이

글: THIÊN TRANG

사파는 아름다움과 예술을 사랑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결코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산자락을 감싸는 안개 속을 흐르고, 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계단식 논 위에서 반짝이며, 고산지대 전통시장을 수놓은 다채로운 직물의 색채 속에서 생동감 있게 펼쳐집니다. 또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삶과 기억이 담긴 전통 의상 속에도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는 마치 살아 있는 무드보드와도 같습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패션이 서로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풍경은 부드러우면서도 화려하고, 토속적이면서도 예술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사람, 전통과 현대가 자신만의 언어로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완성합니다.



THE HIGH-ALTITUDE RUNWAY

ARTICLE:
THIEN TRANG



LOUIS VUITTON
FALL/WINTER 2026 COLLECTION

Sa Pa is a fertile ground of inspiration for souls who love beauty, cherish art, and possess a sharp sensibility for fashion - because here, beauty is never static. It moves fluidly within the early morning mist, glimmers across terraced fields as the autumn sun makes contact, resonates through the vibrant hues of tribal textiles at highland markets, and quietly manifests in traditional garments woven by hand, memory, and generations of daily life. Sa Pa, therefore, functions as a living moodboard, where nature, culture, and fashion converge in a unique vocabulary: soft, brilliant, profoundly indigenous, yet intensely artistic.

패턴의 향연 THE PLAY OF PATTERNS

안개가 머무는 사파의
낭만적인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런웨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다양한 패턴들이
저마다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고원 여행을 떠난다면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플로럴 패턴,
대자연의 야생미를 표현한
애니멀 패턴, 그리고 서북부
소수민족의 전통 직물인
티캄에서 영감을 받은 체크
패턴을 눈여겨보세요.

이러한 패턴들은 2026년
패션계에서도 강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올과
구찌의 플로럴 패턴, 페라가모의
애니멀 패턴, 그리고 ‘체크의
아이콘’ 버버리의 시그니처
체크까지, 시대를 초월한
패턴들은 사파의 풍경과도
묘한 공명을 이루며 또 다른
스타일의 영감을 선사합니다.

DIOR

VAN CLEEF

BURBERRY

LOEWE

DIOR

The romantic, antique charm of this mist-shrouded town easily doubles as a high-fashion runway, setting the stage for a masterful play of patterns. For a highland getaway, do not overlook nature-inspired floral prints, animal motifs that capture the wild beauty of the plateau, or plaid and checkered patterns that mirror the traditional brocade scarves of Northwest communities.

These very textures have driven a fierce competition among global fashion houses throughout the 2026 Spring/Summer to Autumn/Winter calendar. Think of the botanical floral arrangements from Dior and Gucci, the deer-spot prints debuted by Ferragamo, or the timeless heritage checks from the “master of plaid,” Burberry.



대자연의 컬러 팔레트 THE HIGHLAND COLOR PALETTE

올 가을, 베트남
서북부의 풍경이
빛어낸 색채를
입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계단식
논의 허니 옐로, 마을을 잇는
오솔길의 어스 브라운, 깊은
숲을 닮은 모스 그린, 안개가
드리운 산자락의 스모키
그레이, 그리고 전통 수공 염색
직물을 연상시키는 깊고 묵직한
인디고까지, 자연에서 태어난
이 색들은 단순한 컬러를 넘어,
서북부가 품은 풍경과 문화,
그리고 시간의 흔적을 담아내며
한층 깊이 있는 가을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GIA STUDIOS



THE ROW



J.CREW



TOTEME



ALAIA



DIOR



LOUIS VUI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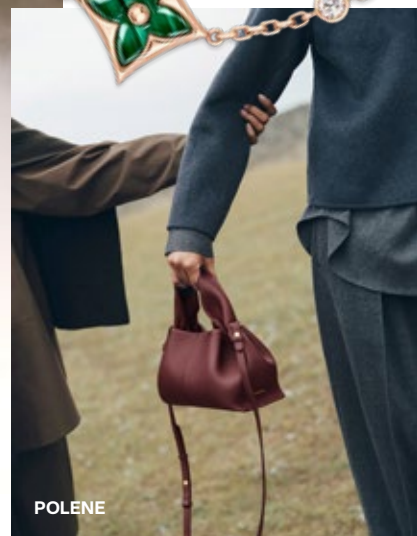
Step into the autumn season with a color palette distilled straight from the soul of the Northwest landscape: the golden honey of ripe terraced fields, the rustic earthy brown of dirt trails winding around remote villages, the quiet deep moss-green of primeval forests, and the ethereal smoky gray of mountain fog. Finally, a deep indigo hue grounds the collection, paying homage to the region's one-of-a-kind, hand-dyed fabrics.

마을을 거닐다 STROLLING THROUGH TOWN

사파의 아침은 가볍고 따뜻한 레이어드 스타일이 제격입니다. 얇은 터틀넥과 니트 카디건, 와이드 데님 팬츠, 앵클부츠를 매치하면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도 포근함을 유지하면서 카페와 골목길 어디에서나 자연스러운 멋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사파는 한층 부드럽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물듭니다. 이때는 베이지, 캐러멜, 올리브 톤의 미디 드레스와 루즈한 카디건이 잘 어울립니다. 창가에 기대어 계곡 위로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스타일입니다.



MANU ATELIER



Begin your morning in a lightweight turtleneck, a knit cardigan, straight-leg jeans, and low-heeled ankle boots. This ensemble is warm enough to cut through the early morning fog, comfortable enough for lounging at a local café, and elegant enough for navigating the narrow streets. As late afternoon settles and Sa Pa softens, opt for a midi skirt paired with an oversized cardigan in coordinating tones of beige, caramel, or olive—ideal for sitting by a window and watching the clouds drift through the valley.



액세서리의 힘 ACCESSORIES DO THE TALKING

여 행지에서는 현지인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그곳이 지닌 감성과 분위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액세서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베이지, 브라운, 버건디 톤의 핸드메이드 위빙 백, 고원의 무드를 담은 부츠, 편안한 로퍼, 흠빛을 닮은 모자, 가볍게 둘러 연출하는 스카프까지, 작은 아이템 하나가 스타일에 깊이를 더하고 여행지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결국 스타일은 디테일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디테일은 여행의 풍경과 기억을 담아내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MASSIMO DUTTI



DOLCE & GABBANA

MASSIMO DUTTI



HERMÈS

When traveling to any land, instead of attempting to “dress like” the locals, aim to honor the spirit of the destination through subtle accents. A vintage brocade scarf, a hand-woven tote bag in shades of beige, brown, or burgundy, a pair of rugged highland-ready boots, classic suede loafers, or an earth-toned hat—these understated accessories allow an outfit to articulate its own unique narrative. 🌟



EXPERIENCE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와 함께
인도로 향하는 여정. 오랜 편견을
넘어 마주한 인도의 아름다움은
어느새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여행지,
푸꾸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눈부신 석양이
몰드는 선셋 타운에서
진주섬만의 매력과
다채로운 경험을
만나보세요.

*Direct flights between
Phu Quoc and India are
now officially operating.
Join Sun PhuQuoc Airways
on a journey to India,
where the proud beauty
of a captivating land may
well steal your heart.
And closer to home,
Phu Quoc's Sunset Town
awaits with a wealth of
unforgettable experiences
of its own.*



인도, 편견을 넘어 만나는 자부심

어떤 여행지는 이름만으로도 설렘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어떤 여행지는 망설임 끝해야 비로소
선택하게 됩니다. 인도는 아마 그런 곳일 것입니다.
이 낯설고도 매혹적인 땅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그 순간, 수많은
편견 너머에 숨겨져 있던 인도만의 찬란하고도
당당한 아름다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글·사진 | 짱비

쉽게 사랑할 수 없는 나라

인도에 대한 이야기는 대개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여행하기 쉽지 않은 곳. 낯선 음식과 문화, 그리고 인터넷에 넘쳐나는 각종 경험담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여행자를 망설이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도를 다녀온 사람들은 종종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내가 알던 인도는 없었다”고, 그리고 여행이 끝난 뒤에도 그곳을 자꾸만 떠올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움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화려한 숙소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따뜻한 마음으로 곁을 지켜준 사람들, 시장에서 만난 상인의 온기 어린 눈빛, 길가에서 밀크티를 팔던 소년의 환한 웃음처럼 여행 중 스쳐 지나갔던 작고 평범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눈 덮인 고갯길을 따라 몇 시간씩 달리던 여정과 수천 미터 높이의 산맥 너머로 떠오르고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던 시간도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세상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던 순간. 인도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그곳의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 속에서 마주한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인도는 수많은 대비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혼란스럽지만 매혹적이고,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지만 생동감이 넘치며, 때로는 낯설고 불편하지만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는 누구나 좋아하는 여행지는 아니지만, 한 번 사랑하게 되면 좀처럼 잊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인도는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게 만드는 여행지입니다.

축소판 세계

인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타지마할이나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원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도라는 거대한 세계를 이루는 수많은 조각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고,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가 인도를 다녀온 뒤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인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은 몰랐다”고, 그 아름다움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티베트를 닮은 웅장한 풍경을 꿈꾼다면 라다크로 향해보세요. 세계 최고 높이의 고갯길과 보석처럼 빛나는 호수, 절벽 끝에 자리한 오래된 사원들이 어우러진 이곳은 마치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1. 라다크의 바위산 절벽 위에 자리한 수도원
2. 팔루트 정상에서 만나는 노을
3. 카슈미르의 낙원





1. 고에차 라에서 만나는 일조금산(日照金山)
2. 누브라 전통의상 대여점 할머니의 환한 미소

반대로 보다 온화하고 낭만적인 풍경을 찾는다면 가슈미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변화를 선사합니다. 꽃이 만발하는 봄, 푸르름이 가득한 여름,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그리고 순백의 설원으로 뒤덮이는 겨울까지. 어느 계절에 찾아도 잊지 못할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화 속에서 막 걸여 나온 듯한 도시를 만나고 싶다면 라자스탄으로 향해보세요. 거대한 성채와 궁전, 그리고 파란 도시·분홍 도시·황금빛 도시로 불리는 개성 넘치는 거리들이 인도만의 독특한 미학을 보여줍니다. 보다 고요한 자연을 찾는다면 시킴과 히마찰프라데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라면 트레킹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쿠아리 패스, 고에차 라, 산다크푸-팔룣, 캄 야체 등 다양한 코스는 장엄한 산세와 함께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유럽으로 건축을

보러 가고, 동남아시아로 바다를 만나러 가며, 일본으로 문화를 경험하러 떠납니다. 하지만 인도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 장의 비자만으로도 마치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찾은 사람들은 한 번의 여행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시 찾고, 또 다시 찾게 됩니다. 저 역시 어느새 열 번 가까이 이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지역마다 풍경도, 문화도, 사람들의 삶도 놀라울 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새로운 지역을 만날 때마다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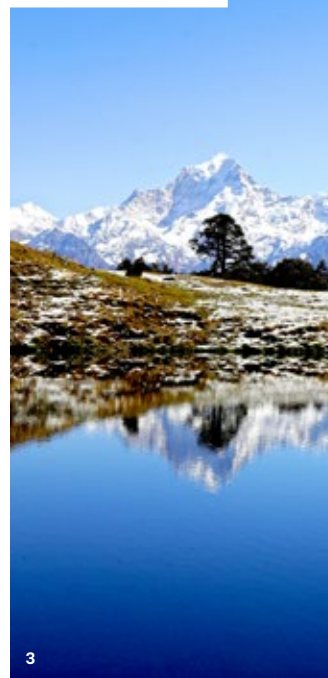
비자는 간편하게, 여행은 부담 없이

많은 사람이 인도 여행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전자비자(e-Visa)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발급 기간도 짧아 여행 준비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비자 비용 역시 다른 해외 여행지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항공권 가격



또한 경쟁력이 높습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베트남 국내선 성수기 항공권과 비슷한 비용으로 인도행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현지 여행 경비도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어 여행 스타일과 예산에 맞춰 자유롭게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인도의 큰 매력입니다. 세계를 여행하고 싶지만 아직 고비용의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인도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인도를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봐야 할 여행지’ 목록에 올려두는 젊은 여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며,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는 여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여성 여행자에게 안전한 여행지일까?

인도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한 준비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여성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중 상당수는 미디어를 통해 과장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들은 빠르게 확산되며 마치 어디를 가도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행의 안전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 여행자라면, 특히 인도를 처음 방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이동하는 것을 피합니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택시나 이용객이 적은 저가 야간열차 이용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는 평점이 높고 후기가 검증된 곳을 선택하며, 부정적인 후기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현지 유심(USIM) 또는 인터넷 연결 환경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식이나 음료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다크, 카슈미르, 라자스탄, 히마찰프라데시, 시킴 등은 많은 여행자가 인도 입문 여행지로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델리와 같은 대도시보다 비교적 여유롭고 여행 환경도 편안한 편이어서, 인도를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인도는 그런 곳입니다. 떠나기 전에는 망설이게 만들지만, 막상 그 땅을 떠난 뒤에는 오래도록 그리움으로 남는 여행지, 어쩌면 인도의 진짜 매력은 여행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3. 쿠아리 패스 트레킹에서 꼭 만나야 할 절경, 탈리 호수

4. 카슈미르의 비산사르 호수



INDIA

Beyond Expectations

Some destinations captivate from the moment you hear their names. Others leave you hesitating, unsure whether to take the leap. India undoubtedly falls into the latter category. To truly experience this vast and complex country, you must step well outside your comfort zone and leave your preconceptions behind. Those who do are often rewarded with a beauty that is proud, profound, and unlike anywhere else on earth.

STORY AND PHOTOS BY TRANG VY

BEYOND FIRST IMPRESSIONS

Mention India, and most people conjure a familiar mental reel: overcrowded streets, chaos, underdevelopment, challenging travel conditions, unpalatable food, or the relentless stream of scam warnings on social media. Yet countless travelers return from their first visit with the same reaction: “India is nothing like I imagined.” Within just a few weeks of returning home, a profound longing sets in.

This isn’t the typical nostalgia for a pristine beach or a luxury resort. It is a yearning for the

mundane and the meaningful, the genuine hospitality of local companions, the warm, expressive eyes of a marketplace shopkeeper, or the vibrant smile of a roadside chai wallah. It is the memory of bumpy, hours-long drives through snow-blanketed mountain passes. It is the stillness of watching the sun trace its path across peaks towering thousands of meters high, a stark reminder of just how small we are in this vast world.

India is a tapestry of contradictions: chaotic yet mesmerizing, ancient yet vital, harsh yet deeply grounding. As

the saying goes, “India isn’t for everyone, but those who fall in love with it can never forget it.” It doesn’t promise an easier life; it compels you to live more deeply.

A WORLD IN MINIATURE

When planning a trip to India, many people immediately think of the Taj Mahal or its centuries-old temples. In reality, these are just glimpses of a country whose scale and diversity can be difficult to comprehend until you experience it firsthand. Many travelers admit that before arriving, they never imagined India could be so breathtakingly

A corner of Thiksey - the most beautiful monastery in Ladakh



EXPERIENCE

beautiful. Its landscapes, cultures, and traditions possess a distinctive character all their own.

For a glimpse of a miniature Tibet, head to Ladakh, home to some of the world's highest motorable passes, turquoise lakes, and ancient monasteries clinging to sheer cliffs—a landscape so surreal it can feel almost otherworldly.

For something softer and more poetic, there is Kashmir, often called “heaven on earth.” Here, spring brings valleys filled with blossoms, summer blankets the countryside in lush greenery,

autumn sets the forests ablaze with gold, and winter transforms the landscape into a world of snow.

If fairytale cities are what you seek, Rajasthan beckons with colossal forts and historic neighborhoods washed in shades of blue, pink, and yellow. Those in search of tranquility and unspoiled nature can look to Sikkim or Himachal Pradesh. Meanwhile, adventurous travelers can challenge themselves on iconic treks such as Kuari Pass, Goecha La, Sandakphu–Phalut, or Kang Yatse.



1. The roadside was laced with clusters of tiny, faded white wild daisies.

2. Fairy tale forest of Tali

3. The beauty and serenity of the Himalayan meadows - an unmissable experience.

4. The crimson-robed Lamas of Ladakh



3

People often travel to Europe for architecture, Southeast Asia for beaches, and Japan for culture. Yet India offers an astonishing range of experiences within a single country. Perhaps that is why so many travelers return again and again. A second trip becomes a third, and sometimes many more, because each region reveals a completely different side of India.

SEAMLESS VISAS, AFFORDABLE ADVENTURES

Surprisingly, traveling to India is far easier than many people expect. The e-visa process is straightforward, with quick processing times and fees that are often lower than those of many other international destinations. Airfares can be equally affordable, sometimes

comparable to the cost of a domestic flight within Vietnam during peak travel periods. Once in India, travelers will find dining,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options to suit almost every budget.

This accessibility has made India an increasingly attractive destination for travelers seeking rich experiences without excessive expense. In recent years, more young adventurers have added the country to their bucket lists, drawn not by luxury resorts but by the opportunity to step beyond their comfort zones and experience something truly different.



4



IS INDIA SAFE FOR SOLO FEMALE TRAVELERS?

This is often the first question prospective visitors ask. The short answer is yes, provided you travel with sensible precautions and good situational awareness.

Stories that circulate online can sometimes create a distorted picture of India. High-profile incidents tend to attract widespread attention, but as with any destination, safety often depends on where you go and how you travel.

For female travelers, particularly those visiting for the first time, a few practical guidelines can help:

- *Avoid walking alone in isolated areas late at night.*
- *Use reputable transportation services and avoid unverified taxis.*



- Choose well-reviewed accommodations and pay attention to recent guest feedback.
- Keep a reliable internet connection through a local SIM card or eSIM.
- Avoid accepting food or drinks from strangers.

Regions such as Ladakh, Kashmir, Rajasthan, Himachal Pradesh, and Sikkim are generally considered more approachable for first-time visitors than major metropolitan centers such as Delhi.

Travel is about far more than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The most meaningful journeys often change the way we see the world—and ourselves. For many travelers, India is that kind of destination: a country that inspires hesitation before arrival, yet leaves an enduring impression long after the journey ends. 🌟

A panoramic view of Leh Valley as seen from Leh Palace



석양의 마을

찬란한 주황빛 태양이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눈부신 빛을 쏟아냅니다. 반짝이는 빛의 띠는 수면 위를 길게 가로지르며 황홀한 풍경을 완성합니다. 저는 그 장엄한 석양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 깊은 곳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곧 태양은 서서히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바다를 물들인 빛도 함께 저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남긴 감동만큼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물며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글 | 소설가 투이 즈영 (트영자 신문 편집장)

주변에서는 많은 이들이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환하게 웃으며, 마치 손바닥 위에 붉게 빛나는 태양을 올려놓은 듯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멀리 서로를 향해 뻗어 있는 두 다리 끝에서는 연인들이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풍경 속에서 낭만적인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풍경 속에 스며든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눈앞의 모든 순간을 천천히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결마저 느껴질 만큼 선명했던 그 시간은 한순간 한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은 꿈이 아닐까. 혹은 잠시 동화 속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눈앞의 이 아름다운 풍경이 조금만 더 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이곳의 이름이 ‘선셋 타운’ 인지!

회색빛 자갈이 촘촘히 깔린 길을 천천히 걸으며, 구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들려오는 경쾌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들뜨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저처럼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외국인 여행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거닐고 있었고, 길가에 놓인 라탄 의자에 앉은 유럽인들은 맥주 한 잔을 곁들인 채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고도(古都)와 지중해의 눈부신 바다, 형형색색의 매력적인 도시들을 이미 품고 있는 그들이 과연 무엇에 이끌려 이 작은 섬까지

찾아온 것일까 하고 말합니다.

썸 크래프트비어 브루하우스에 들른 저는 호기심에 맥주 원료를 직접 맛보았습니다. 허끝에는 은은한 매콤함과 씹새래한 풍미가 감돌았습니다. 한 외국인 브루어는 이곳의 수제맥주 제조 과정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고, 갓 완성된 신선한 맥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평소 원래 맥주쟁이는 아니지만, 활기찬 분위기에 어느새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거품이 가득한 맥주잔, 향긋하면서도 묵직한 풍미, 그리고 목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청량한 목넘김.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웃음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음식만큼 강력한 매력을 지닌 것도 드물니다. 이날 점심에는 새우·오징어 샐러드를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채로운 색깔이었습니다. 붉은빛을 띠는 새우와 새하얀 오징어, 싱그러운 초록빛 채소,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탐스러운 방울토마토, 그리고 짙은 색의 해조류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졌던 이 열대의 풍경은 이내 하나의 풍성한 맛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바다의

신선한 풍미를 바탕으로 새콤함과 매콤함, 짭조름함과 은은한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입안 가득 생동감을 전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숨 쉬고 자라나는 자연의 에너지를 담아낸 듯했고, 한편으로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깊은 여운도 품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기 본연의 풍미를 가장 완벽하게 끌어낸 한 접시였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질 만큼 연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이 어우러져, 씹을수록 은은한 감칠맛과 깊은 풍미가 오래도록 입안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거리 한편에 자리한 레몬 퀸(Lemon Queen)에 들러 잠시 쉬어갔습니다. 싱그러운 레몬을 연상시키는 산뜻한 분위기가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레몬 아이스크림 한 스푼은 하루 동안 이어진 미식의 여운을 상큼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활기 넘치는 해변의 풍경 속에서 우리도 어느새 그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다채로운 요리를 비롯해 수백 가지 미식을 만날 수 있는 이곳. 풍성한 맛의 세계를 경험한 여행자라면 누구나 지금의 우리처럼 푸꾸옥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밤이 내려앉자 하늘은 깊고 푸른 어둠으로 물들고, 그 사이로 별빛이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빛과 불꽃, 물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장면들이 펼쳐지며 밤은 마치 한 편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전설과 상상력이 어우러진 ‘키스 오브 더 씨’, 밤하늘 가득 피어나는 불꽃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몽환적인 풍경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잊고 있던 감정과 열망을 조용히 일깨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연과 이 땅, 그리고 삶을 향한 애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름다움에 완전히 압도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해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는 친구와 함께 일출을 맞이하기로 한 약속마저 잊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침 햇살에 물든 선셋 타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덕을 따라 들어선 형형색색의 건물들은 푸른 바다를 향해 조용히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물결 위로 부서지는 햇살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머리카락이 뺨을 감싸고, 어깨에 걸친 스카프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선셋 타운에 작별을 고하며 전날부터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렵פות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곳을 찾는 걸까? 아마도 이곳에는 풍경 그 이상의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도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남아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힘. 선셋 타운은 그렇게 여행자의 기억 속에 자신만의 빛을 남깁니다. 언젠가 다시 이 섬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풍경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푸꾸옥은 끝내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은 채, 다음 만남을 약속하듯 조용히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

1. 키스 브리지

2. 선셋 타운



Where the Day Ends in Beauty

BY THUY DUONG
EDITOR-IN-CHIEF, THUONG GIA MAGAZINE

The sun, glowing a brilliant shade of orange, hung low over the horizon, casting a shimmering ribbon of light across waters as turquoise as jade. I stood still, captivated by the splendor of the moment and the sense of wonder it inspired. I knew that within minutes both the sun and its dazzling trail of light would slowly fade from view, leaving behind a sense of longing. Yet the memory would remain.

Around me, visitors stretched out their arms and smiled brightly, capturing photographs that made it look as though they were holding the glowing orb of the sun in their hands. In the distance, on the two ends of a bridge reaching toward one another, couples exchanged kisses against a backdrop where

sea and sky merged into one. Everything felt dreamlike, yet strangely intimate. I found myself lingering over every detail, reluctant for the moment to end. For a few minutes, it was easy to understand why Sunset Town has become one of Phu Quoc's most photographed places.

In that moment, I understood why this place is called Sunset Town.

I wandered slowly along

streets paved with small gray stones, listening to the gentle rhythm of my footsteps. Somehow, I felt younger, lighter, and even a little playful. Around me, foreign visitors strolled hand in hand through the streets. Along the sidewalks, people relaxed on woven rattan-style chairs. A group of Europeans sat leisurely enjoying a beer. I found myself wondering what had drawn them all the way here. After all, they already have Europe's historic towns, beautiful coastlines, and the colorful cities of the Mediterranean.

At the Sun KraftBeer craft brewery, curiosity led me to sample a few grains of malt. Their slightly bitter, peppery flavor lingered on my tongue. The brewer who introduced us to the beer-making process guided me through my first freshly poured glass. I have never considered myself a beer enthusiast, yet the festive atmosphere was undeniably infectious. Golden beer foamed in tall glasses, carrying aromas both fragrant and bold. As the beer disappeared from our glasses, conversation and laughter flowed just as easily.

Food, after all, has always had a way of captivating people.

Earlier that afternoon, I had the chance to enjoy a shrimp and squid salad that first appealed to the eyes before delighting the palate. Pink shrimp, pristine white squid, vibrant green vegetables, bright red cherry tomatoes, and strands of dark seaweed came together like a tropical painting.

The flavors proved every bit as appealing as the presentation. Fresh, vibrant, and beautifully balanced, it captured the essence of the sea while weaving together notes of sweetness, saltiness, acidity, and spice, much like life itself. There was even something nostalgic hidden within it, a taste that felt both familiar and distant. The steak was equally memorable. Tender beyond expectation, it released its natural sweetness with every bite, leaving behind a clean, delicate richness.

Later, we stopped at a street corner where Lemon Queen caught our attention with its cheerful shades of green and

yellow. Spoonfuls of lemon ice cream melted slowly, providing a refreshing finale to the day's culinary discoveries and drawing us further into the lively atmosphere of this seaside town. Visitors come here to explore the rich flavors of tropical Vietnam, choosing from hundreds of Asian and European dishes. I wondered if they, too, would fall in love with Phu Quoc the way we had.

As night descended, the sky turned dark and impossibly deep, scattered with tiny stars. Then came a spectacle of light, fire, and water that brought the evening to life. Legend and creativity intertwined in Kiss of the Sea, an emotional performance that unfolded before us. I tilted my head upward as fireworks burst across the sky. Their beauty was difficult to ignore. For a few moments, everyone around me seemed to stop talking and simply look up at the sky. Watching the display unfold above the sea, I was reminded how travel can still

surprise us, even in places we think we know well.

The next morning, when I awoke, the sun had already risen. A deep and peaceful sleep had made me forget my promise to greet the dawn with a friend.

I looked out over Sunset Town in the soft morning light. Colorful buildings climbed the hillside overlooking the sea, their facades glowing in the soft morning light. The wind swept through my hair and lifted the bright scarf draped over my shoulders.

As I said goodbye to Sunset Town, I found that I had an answer, at least in part, to the question I had asked the day before: Why do they come?

I left with a renewed sense of energy and a deeper appreciation for Sunset Town and the island that surrounds it.

Phu Quoc, until next time. I know there are still more discoveries waiting among your forests and seas. 🌟

1, 2. Sunset Town



골프와 산, 자연을 함께 즐기는 시간

세계적인 산악 골프 코스들은 골퍼들에게 도전과 경험이 공존하는 ‘성지’ 이자, 자연의 웅장함과 장엄한 풍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글: 강 팜

스위스: 알프스 품에서 즐기는 골프

스위스는 동화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뿐 아니라, 알프스의 장엄한 산세를 배경으로 한 유럽 최고의 산악 골프 코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크랑-쉬르-시에르 골프 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해발 약 1,500m 고원에 위치한 이 골프장은 론 계곡과 마터호른에서 몽블랑에 이르는 알프스의 최고봉들을 조망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망을 자랑합니다.

이 골프 클럽은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세베리아노 코스와 잭 니클라우스 코스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8홀 세베리아노 코스에서는 유명 대회인 오메가 유러피언 마스터스가 개최됩니다.

중국: 설산을 마주한 도전

중국 리장은 고대 건축물과 웅장한 산맥이 어우러져 ‘한 번 빠지면 헤어내기 어려운 여행지’로 불립니다. 특히 옥룡설산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설산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옥룡설산 골프 클럽은 중국 골프의 상징적인 코스 중 하나입니다. 해발 약 3,100m에 자리한 이 골프장은 총 길이 7,816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동시에, 사계절 내내 설산이 둘러싼 장대한 자연 속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독보적인 공간입니다.

베트남: 쭈아 산의 품에서 즐기는 도전

베트남 중부 바나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바나 힐스 골프 클럽은 산악 지형 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골프 코스로 유명합니다. 해안과 떨어진 고지대에 자리해 다양한 고도 변화와 안정적인 기후, 그리고 산이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바람 차단 효과가 이곳만의 특징입니다.

챔피언십 티잉 구간 기준 약 7,857야드에 걸쳐 펼쳐진 바나 힐스 골프 클럽은 베트남에서도 손꼽히는 장거리 골프 코스 중 하나입니다. 각 홀은 웅장하면서도 서정적인 산림 속에 자연스럽게 숨겨져 있으며, 골퍼들은 해발 1,487m에 이르는 ‘쭈아(Núi Chúa)’ 정상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등선경지로(登仙境之路)’, 즉 신선의 세계로 오르는 길이라 불리며 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또한 이 골프장은 밤이 찾아와도 라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각 홀마다 최첨단 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골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개장 초기부터 이 골프장은 2016년 ‘세계 최고의 신규 골프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Golf's Greatest MOUNTAIN SETTINGS

The world's most spectacular mountain golf courses offer far more than a challenging round. They place golfers amid some of the planet's most breathtaking landscapes, where dramatic peaks provide a heavenly backdrop to every shot.

Vietnam also has such a golf course.

BY KHANG PH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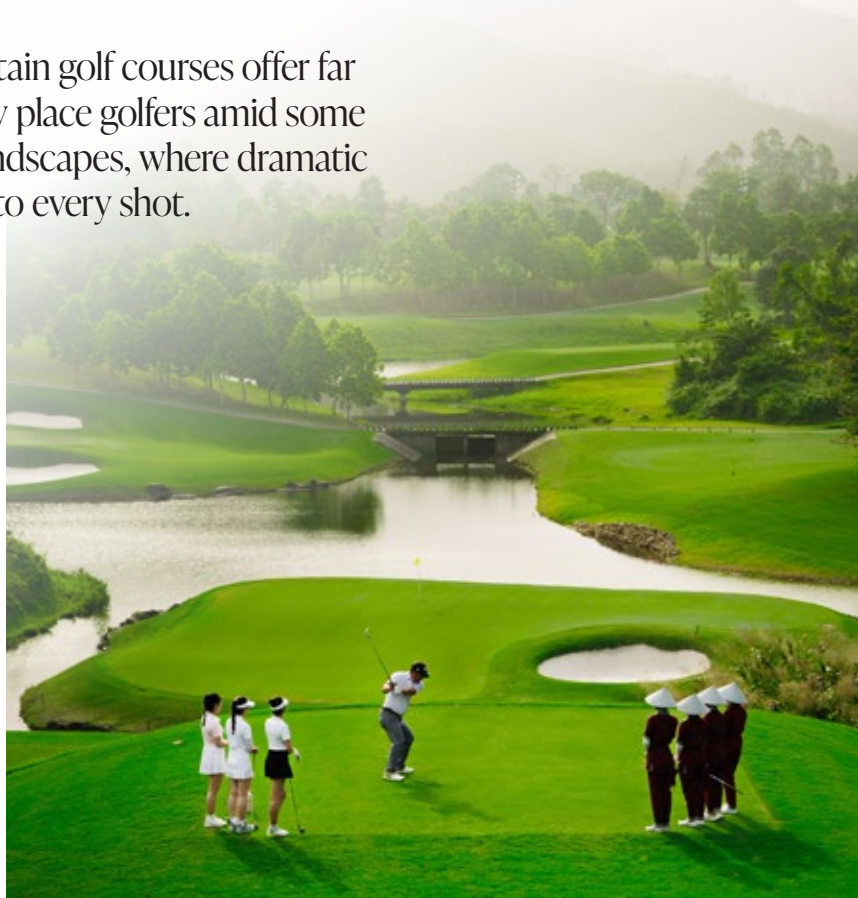
SWITZERLAND: A ROUND WITH AN ALPINE VIEW

Switzerland is renowned not only for its storybook scenery but also for some of Europe's most stunning golf courses set against the majestic Alps. Among them, Golf Club Crans-sur-Sierre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beautiful golf courses in the world. Perched on a plateau at an elevation of 1,500 meters, the course enjoys sweeping views over the Rhone Valley and a panorama of iconic Alpine peaks stretching from the Matterhorn to Mont Blanc.

CHINA: TEE OFF BENEATH SNOW-CAPPED PEAKS

Lijiang is one of China's most captivating destinations, known for its ancient architecture, dramatic landscapes, and the spectacular Jade Dragon Snow Mountain, whose snow-covered peaks resemble a scene from a painting. Here, Jade Dragon Snow Mountain Golf Club has become one of the icons of Chinese golf. Situated at an altitude of 3,100 meters above sea level, the course stretches an astonishing 7,816 meters, making it the longest golf course in the world.

Ranked among the most challenging golf courses on the planet, Jade Dragon Snow Mountain Golf Club is also a masterpiece of scenic design, offering extraordinary views of the snow-capped Jade Dragon Snow Mountain throughout the year.



VIETNAM: FAIRWAYS BENEATH HEAVENLY NUI CHUA

Nestled along the road leading to the summit of Ba Na, Ba Na Hills Golf Club stands out as one of Vietnam's most beautiful mountain golf courses. Located away from the coastline, the course benefits from varied elevations, natural wind protection, and a cool climate that sets it apart from many other courses in the region.

Stretching 7,857 yards from the championship tees, Ba Na Hills Golf Club ranks among the longest

golf courses in Vietnam. Each hole is set amid dramatic mountain scenery and lush forests, offering golfers uninterrupted views of Nui Chua, the 1,487-meter peak often described as a gateway to a fairyland above the clouds. The golfing experience continues well after sunset, with every hole illuminated by a state-of-the-art lighting system that allows for night play.

The course earned international acclaim soon after opening, winning the title of World's Best New Golf Course in 2016. 🌟

FEATURE



마치 예술관을 거니는 듯한 호텔, ‘개츠비의 세계’를 담아낸 휴양 공간, 환상의 세계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리조트, 예술적 영감이 깃든 공간에서의 특별한 휴식은 ‘아트 트래블’을 꿈꾸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Hotels that double as art museums, resorts inspired by the world of The Great Gatsby, and retreats that transport guests into fantasy realms – these are just some of the experiences awaiting travelers drawn to the growing trend of art-inspired hospitality.

예술적 감각으로 즐기는 휴식

고대 로마의 귀족과 철학자들은 아말피 해안이나 폼페이 해변을 따라 별장을 짓고 세속을 잠시 떠나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공간을 ‘빌라 오티움(villa otium)’ 이라 불렀는데, 이 단어에는 이미 ‘예술적 여유와 품격 있는 휴식’ 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휴식은 단순한 쉼을 넘어, 처음부터 예술적 감수성과 함께 발전해 온 문화적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 황희한 | 사진 제공: 호텔

예술 관광의 시작

‘빌라 오티움(villa otium)’ 이라는 개념에서 ‘villa’ 는 정원을 갖춘 별장을 의미하며, 이후 현대에 이르러 하나의 주거 형태이자 휴식 공간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otium’ 이라는 개념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Otium’ 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즉 스스로를 인식하는 여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별장에서는 사냥이나 온천욕, 식사와 휴식 같은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을 멈추게 하는 ‘정지된 상태’ 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복잡한 장부와 정치, 도시의 소란스러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철학과 예술에 깊이 몰입하며 사유했습니다. 분수와 대리석 조각상, 그리고 덩굴식물이 어우러진 정원에서 독서하고 글을 쓰며, 때로는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 리조트의 핑크 펄 레스토랑

연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대한 사상과 작품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빌라 오티움’ 은 인간이 이상적으로 상상한 세계관을 구현한 공간이자, 지적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귀족과 문인들이 산장(山莊)과 임원(林園)을 조성한 목적 역시 단순히 ‘한가로이 노니는 삶’, 이른바 나태한 은일에 머무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성현들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 표현하던 일종의 풍자적 자기 서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별서 공간은 학문을 탐구하고 예술을 창작하며 사유를 이어가는 장소였습니다. 앞마당에 떨어지는 매화 한 잎의 소리를 듣고, 뒷마당에 훑날리는 벚꽃의 낙화를 바라보는 감각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실내에는 수목화가 걸려 있고, 처마 아래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석조 신수가 자리하며, 정원에는 세월의 걸을 품은 노송이 배치되어





영향은 아시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베네치아, 피렌체, 파리에서 시작해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호텔은 더 이상 단순히 머무는 공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회화 작품이 전시되는 갤러리 공간이 마련되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의 천장화와 부조 장식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예술적 공간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호텔들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문화적 거점이자, 여행자들이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예술과 일상, 그리고 도시의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예술 여행의 중간 지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페닌술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예술적 럭셔리 호텔 브랜드로, 홍콩에 위치한 페닌술라 호텔은 그 상징적인 존재로 꼽힙니다. 1928년에 문을 연 이 호텔은 ‘극동의 귀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유물과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1. 호텔 드 라 쿠폴 - 엠겔러리 사파의 인테리어
2. 인터컨티넨탈 다낭 썬 페닌술라 리조트
- 3,4. 카펠라 하노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가야금 혹은 고토의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며, 공간 전체를 고요한 사유의 장으로 이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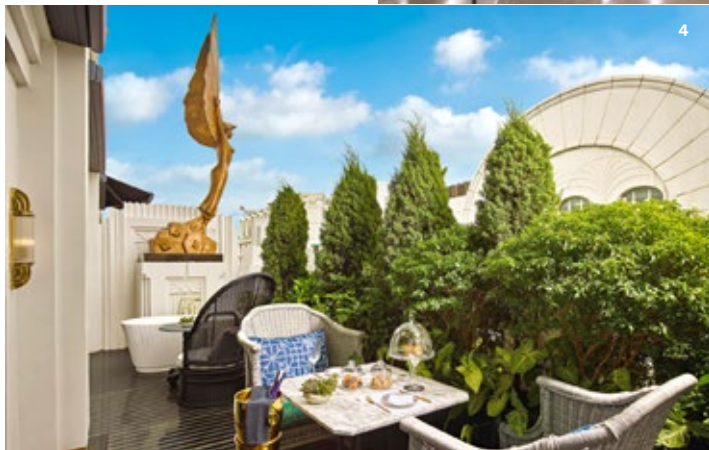
17~19세기 유럽 상류층에게 예술과 결합된 여행은 교육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였습니다. 영국과 북유럽 귀족 가문의 자제들은 성인이 되는 시기에 이르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순회하는 장대한 여행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유럽의 이른바 ‘문화 수도’들을 방문하며 예술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교양과 세계관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 관광’의 흐름은 유럽 전역에 그랜드 호텔의 탄생과 확산을 이끌었고, 이후 그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1박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페닌슐라는 홍콩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여전히 특별히 선호되는 대표적인 럭셔리 호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호텔 데 아카데미에 데자르가 한때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나 스구하루 후지타와 같은 유명 예술가들이 머물던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객실이 20개에 불과한 이 호텔은 마치 고전적인 화실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현대 미술 전시가 종종 열리는 예술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치유되는 시간

예술과 결합된 휴양은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휴양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원형에 가깝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미 그렇게 이해했고, 고대의 한국·중국·일본 역시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움 속에 몸을 맡기고, 추상적인 이야기와 감각의 울림에 자신을 열어둘 때, 마음과 몸은 단순히 ‘치유되는 것’을 넘어 서서히 확장되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휴가를 떠나는 이유는 결국 잃어버렸던 개인의 감각을 되찾고, 외부의 자극이나 광고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진짜 감정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바로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예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리조트는 이제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시각 예술 작품과 건축 양식이 공존하는 하나의 ‘생활형 미술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형태로, 한 주인의 세심한 감각이 담긴 와비사비 스타일의 홈스테이처럼 조용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거대한 스케일로 확장되어 한 건축가의

미학과 이야기 서사가 집약된 리조트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빌 벤슬리와 같은 건축가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디테일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담아 공간을 설계하며 ‘아름다움을 수집하고 서사로 엮어내는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하노이 중심부의 럭셔리 호텔 카펠라 하노이에서 오페라 황금기의 화려한 세계로 여행자를 이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JW 메리어트 푸꾸옥에서 19세기 가상의 귀족 대학생이 되어 세계 각지의 유물을 접하는 상상 속 캠퍼스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건축가 빌 벤슬리는 예술에 대한 집요한 정도의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베트남에만도 4곳 이상의 ‘예술 기반 리조트’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 세기 전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귀족이 아니어도 그랜드 호텔이나 ‘빌라 오티움(villa otium)’이 구현한 예술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여행은 이제 단 하루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중 반나절은 재정과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반나절은 단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의 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아름다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

When Travel *Art* Became an *Form*

When Roman nobles and philosophers built villas along the Amalfi Coast and around Pompeii, they called them villa otium. Even in its earliest form, the idea carried something beyond architecture: a vision of hospitality shaped by art and reflection.

BY HOANG HOI HAN | PHOTO: PROVIDED BY THE HOTEL

FROM VILLA OTIUM TO ART INSPIRED HOTELS

Villa, literally ‘a house set within gardens’, would evolve into a familiar model of domestic luxury. Otium, by contrast, has faded from modern vocabulary. For the Romans and Greeks, it described leisure, not as idleness, but as a deliberate space for thought, self-discovery, and contemplation.

Life within these villas certainly included hunting, bathing, dining, and relaxation. Yet they were never places of idleness. Their owners left behind the ledgers, politics, and bustle of Rome to immerse themselves in philosophy and the arts. They read and wrote, delivered speeches, and debated ideas among fountains, marble statues, and climbing vines. Many great works were born in such settings. The villa otium became a place where people could shape their worldview and cultivate intellectual life in their own way.



When East Asian scholars and aristocrats built mountain retreats and garden estates, their purpose was not simply to withdraw from society. Such places became spaces for study, artistic creation, and contemplation. There, one could hear a plum blossom fall in the front courtyard or watch cherry blossoms drift across the garden behind. An ink wash painting hung inside, a carefully carved stone guardian stood by the veranda, and a sculpted pine tree graced the garden. Somewhere in the distance, the sound of a

guzheng or koto drifted through the air.

By the seventeenth through nineteenth centuries, art centered journeys had become an essential part of the education of Europe's upper classes. Young aristocrats from Britain and Northern Europe embarking on adulthood would undertake months, sometimes years, of travel through France, Italy, and Greece. They visited the cultural capitals of Europe to study art, history, and civilization firsthand.

It was this movement of cultural travel that helped fuel the rise of grand hotels across Europe and later Asia. Rather than serving merely as places to stay, hotels in Venice, Florence, Paris, Hong Kong, and Singapore began incorporating galleries, sculptures, Renaissance frescoes, and Baroque artworks. They became gateways to culture, allowing guests to immerse themselves in artistic experiences while traveling.

The Peninsula, among the world's oldest luxury hotel brands, offers one of the best known examples. The iconic Peninsula Hong Kong, opened in 1928 and often called the Grande Dame of the Far East, houses an impressive collection of historical artifacts and artworks. Despite room rates that can reach thousands of dollars per night, it remains one of Hong Kong's most sought after destinations.

In France, Hôtel des Académies et des Arts once welcomed celebrated artists including Amedeo Modigliani and Tsuguharu Foujita. With just 20 guestrooms, the hotel evokes the atmosphere of a classic artist's studio and regularly hosts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HEALING THROUGH ART

Art-inspired hospitality is not a modern invention. On the contrary, it represents the very essence of what a retreat was originally meant to be. The Romans believed this. Ancient Vietnamese, Chinese, and Japanese cultures believed it as well. When people immerse themselves in beauty, stories, and emotional experiences, both the spirit and the body do more than heal. They grow.

We travel to rediscover our individuality and reconnect with authentic emotions rather than those imposed upon us by trends and advertising. The beauty of art is that it helps us do exactly that.

Today, art-inspired resorts have become living museums of visual art and architecture. Sometimes they are modest, perhaps a small homestay thoughtfully designed around the principles of wabi-sabi. Sometimes they are grand destinations created by architects devoted to beauty and storytelling.

Few embody this spirit more fully than architect Bill Bensley. At Capella Hanoi, he recreates the golden age of opera in a theatrical setting in Vietnam's capital. At JW Marriott Phu Quoc Emerald Bay, guests enter a fictional nineteenth-century university filled with thousands of curated artifacts. Across Vietnam, his work spans multiple immersive resort narratives.

Unlike centuries ago, entering this world no longer requires aristocratic privilege. It requires only travel. And perhaps a simpler question: not whether we can afford beauty, but whether we still notice when it is offered. 🌟



Hotel de la Coupole –
MGallery Sa Pa

예술로 역사를 서사하는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인터컨티넨탈 다낭 선
페닌슐라 리조트(InterContinental
Danang Sun Peninsula Resort,
다낭 손트라 반도)가 2012년,
세계적인 ‘예술 기반 럭셔리 휴양’
개념을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세 계 최고의 리조트로 4년
연속 선정된 이 공간의
‘럭셔리 가치’는
단순히 고가의 인테리어나 최상급
서비스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건축이라는 예술적
언어를 통해 베트남의 영혼을 다시
서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전, ‘
리조트의 제왕’이라 불리는 빌
벤슬리는 사파, 호이안, 후에, 푸꾸옥
등 베트남 전역을 약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답사하며 긴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베트남 S자 지형 곳곳에 숨겨진 가장
인상적이고도 가장 토착적인 건축적
요소와 풍경의 결을 수집하듯
체화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영감은
그의 손을 거쳐, 손트라 반도에
위치한 럭셔리 호텔 공간 안으로
정교하게 재구성되었으며, 이른바
‘건축의 마법사’라 불리는 그는
베트남 곳곳의 아름다움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내듯 이 리조트에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단순히 ‘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마치 시간을 굽이치는 주문처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서로 다른
지역과 시대의 건축 언어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겹쳐지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고요히 숨 쉬는 옛
왕조의 도시, 후에(Huế)의 기억이
한 폭의 풍경처럼 펼쳐집니다.
고궁과 황릉에서 길어 올린 듯한
섬세한 문양들은 벽면 곳곳에
은은하게 스며 있고, 완만하게

흐르는 전통 지붕선은 마치 시간의
걸을 따라 이어지는 물결처럼 공간
위를 유영합니다. 투본 강의 강가를
따는 회회 공간들은 오래된 도시의
숨결을 머금은 채 잔잔히 펼쳐지고,
거리마다 드리워진 등불들은 한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현재로
불러와,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
위에서 겹겹이 호흡하는 듯한 장면을
완성합니다.

리조트의 인테리어 역시 베트남의
고찰(古刹)과 전통 사원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어, 공간 곳곳에서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등불 장식과 정교하게
조각된 촛대, 용과 코끼리, 사자,
연꽃을 형상화한 장식 요소들은
동남아시아 전통 장인의 미감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헤드보드의
디자인은 하노이 뱃짱 공예마을의
한 정원에서 마주했던 정자 공간의

디테일에서 착안된 것으로, 일상적인
풍경조차 하나의 디자인 언어로
승화시킨 흔적이 엿보입니다. 또한
검은색으로 칠해진 목재와 흰색 벽돌
타일을 조화롭게 배치한 구성은 음양
(陰陽)의 균형을 상징하며, 동아시아
고유의 철학과 종교적 세계관을
공간 디자인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북부 베트남의 정겹고 소박한
농촌 풍경 또한 이곳에서 시적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
시트론은 동해를 향한 탁 트인
전망을 품고 있으며, 내부에는 3
개의 독립된 다이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마치 수확기
북부 농촌 마을에서 벅짚 더미에
둘러싸인 가설 천막을 연상시키도록
디자인되어, 전통적인 계절의 기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 홍강 평야에 위치한
뱃짱 도자기 마을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가마들은, 늘 타오르는
불꽃과 연기와 함께 리조트 곳곳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공간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리조트 전반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가구와 오리지널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머무는 이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과 감각적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세계적인 예술적 감각을
품으면서도, 동시에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것이 바로 이 초호화 호텔이
완성한 성공의 공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A STORY OF VIETNAM, *Carved into* THE COAST

In Vietnam, InterContinental Danang Sun Peninsula Resort, located on the Son Tra Peninsula in Da Nang, pioneered the concept of art-inspired luxury hospitality when it opened in 2012.

The resort's recognition as the World's Leading Luxury Resort for four consecutive years reflects more than its interiors or service. Its significance lies in its interpretation of Vietnam itself, expressed through architecture rich in symbolism and detail.

Before beginning the project, designer Bill Bensley made nearly 20 journeys across Vietnam, from Sa Pa and Hoi An to Hue and Phu Quoc. The architectural forms and cultural details he encountered across the country became points of reference. Rather than

replicating them, he reinterpreted them, weaving influences from different regions and periods into a single, cohesive design language.

Throughout the resort, references to imperial Hue appear in motifs drawn from royal palaces and tombs. Curved communal house roofs, riverside gathering spaces reminiscent of the Thu Bon River, and lanterns inspired by Hoi An all find expression within the design.

Inside, the narrative continues in finer detail. Lanterns, carved candleholders, and motifs of dragons, elephants, lions, and lotus flowers recall Vietnam's historic temples. Headboards throughout the resort draw inspiration from architectural fragments discovered by Bill Bensley in a communal house courtyard in Bat Trang, the craft pottery village near Hanoi. Even the contrast of black lacquered wood and white tiles reflects the

Eastern idea of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a recurring theme in Vietnamese cultural thought.

The pastoral landscapes of northern Vietnam are also present. Perched above the East Sea, Citron restaurant features three private dining pods inspired by haystacks from harvest season in the Red River Delta.

Elsewhere, the pottery kilns and drifting smoke of Bat Trang village are echoed in decorative details throughout the property, subtly woven into the wider design nar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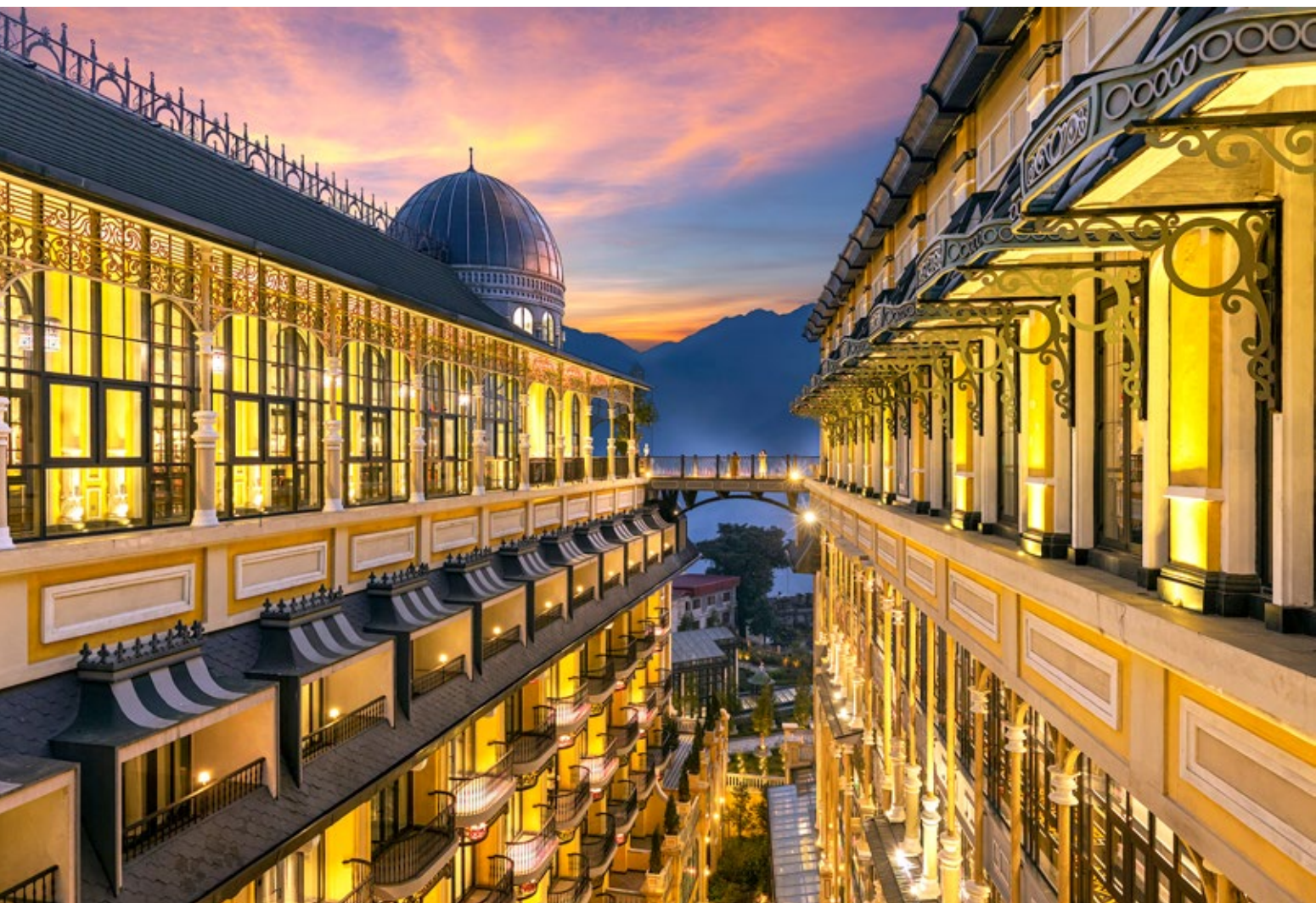
Across the resort, finely crafted furnishings and original artworks create a constant sense of discovery. 🌟



구름 속 마을의 ‘오트 쿠튀르 아틀리에’

패션과 건축이 하나의 예술적 공간 안에서 만날 때, 그곳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창조성이 극대화된 예술의 정점이 됩니다. 예술이 서로를 비추며 한층 더 확장되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파의 안개 낀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호텔 드 라 쿠폴 - 엠갈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세기 유럽의 궁전

패션의 세계에서 ‘오트 쿠튀르 (haute couture)’는 화려함의 정점이자 창조성과 기술력이 극한까지 도달한 영역을 상징합니다. 이는 모든 의상이 장인의 손길을 통해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완성되며, 가장 숙련된 장인들의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션을 하나의 예술로 여기는 이라면 호텔 드 라 쿠폴 - 엠겔러리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오트 쿠튀르의 세계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패션 애호가гаа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건축가 빌 벤슬리가 완성한 이 공간은 마치 장인의 손길이 깃든 맞춤 재단 공방을 연상시키며, 동시에 예술적 감각으로 가득한 화려한 미학을 느끼게 합니다.

‘건축의 마법사’라 불리는 빌 벤슬리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파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하나의 경험으로서 공간을 온전히 감상하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그의 공간 속에서 투숙객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오트 쿠튀르가 지닌 고급스러운 미학을 향유하게 됩니다. 20세기 초 유럽 귀족의 궁전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건축적 장치 속에서, 동시에 베트남 북서부 고산지대 특유의 영혼과 정서가 깊게 스며든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마치 파리의 빛의 대로 한복판에 위치한 오트 쿠튀르 부티크에 들어선 듯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로비 공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높은 천장을 자랑하는 로비는 마치



품격 있는 프랑스 아가씨를 위해 설계된 공간처럼 당당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녀의 섬세한 취향과 화려한 드레스에 대한 애정을 품은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로비는 고전적인 쇼핑 아케이드를 연상시키는 디테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눈부신 핑크 톤의 화려한 색감 속에서 수백 개의 모자가 공중에 떠 있는 듯 장식되어 있고, 바닥에는 고풍스러운 트렁크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 실타래, 마네킹, 반짝이는 드레스, 부족 문양의 목걸이, 모피 의상까지—그리고 수백 개의 거대한 실타래가 가득한 서랍장들이 공간 전체를 압도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뷔페 레스토랑 ‘Chic’은 마치 패션 쇼의 무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실타래와 빈티지 재봉틀이 장식 요소로 배치되어 있고, 공간의 중심에는 런웨이를 연상시키는 캣워크가 자리해 있어, 마치 한 편의 패션쇼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고산지대의 순수한 영혼

하지만 이곳이 사파 한가운데에 자리한 유럽풍 궁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안에 스며 있는 북서부 고산지대의 순수한 영혼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호텔 드 라 쿠폴 - 엠갤러리를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마치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하는 궁전’ 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20세기 초 사파에서 살아가던 프랑스인들의

삶과, 그 시기 이 지역을 구성하던 몽족, 다오족, 사포족, 따이족, 자이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의 세계가 한 공간 안에서 교차하며 하나의 서사로 엮여 있습니다.

등잔갓은 고산지대 소녀들의 머릿수건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 벽면과 소파, 그리고 온천 풀의 바닥까지 이어지는 장식에는 소수민족의 전통 직물인 동(東)서 패턴이 촘촘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작은 종들은 마치 시골길을 따라 울리던 소리를 떠올리게 하며, 해질 무렵 소와 말이 마을로 돌아오던 풍경처럼 은은한 울림을 공간 안에 남깁니다. 호텔 드 라 쿠폴에서는 세련된 프랑스 상류층 여성들의 우아한

모습과 함께, 한편으로는 생기 넘치고 순수하며 소박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지닌 고산지대 소녀들의 이미지가 동시에 겹쳐 보입니다.

소피텔 산하 호텔 드 라 쿠폴 엠갤러리를 통해 빌 벤슬리는 사파 한가운데에 프랑스의 화려한 럭셔리 미학과 북서부 고산지대의 영혼을 동시에 품은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른바 ‘마법사’라 불리는 그는 패션에 대한 집요한 집착과 열정을 건축으로 풀어내며, 베트남의 럭셔리 리조트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화려한 휴식이 아니라, 역사와 예술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The Couture Palace IN THE CLOUDS

Few hotels blur the line between fashion and architecture as boldly as Hotel de la Coupole – MGallery. Set above the cloud-wreathed valleys of Sa Pa, Bill Bensley’s creation brings together the glamour of French haute couture with the culture and traditions of Vietnam’s northwest highlands.

THE PINNACLE OF STYLE

In the world of fashion, haute couture represents the highest level of luxury, creativity, and craftsmanship, where every piece is handmade by master artisans.

That sense of artistry is visible from the moment guests enter Sapa’s most fabulous hotel. Even those with little interest in fashion quickly recognize that this is no ordinary mountain retreat. Designed by renowned architect Bill Bensley, who has been dubbed “the Willy Wonka of hotel design”, the property feels more like a theatrical interpretation of a fashion atelier, set within a grand European-style palace in the clouds.

Stepping into the lobby, guests encounter a space designed with the visual language of a high-fashion boutique, reimagined on a larger, more theatrical scale. The lounge is defined by soaring ceilings and bold decorative details that set the tone. Hats,

trunks, mannequins, textiles, and vintage fashion objects are arranged throughout the space,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feels part gallery, part stage.

THE SPIRIT OF THE NORTHWEST

Yet within this European-style setting, the spirit of the Northwest highlands remains clearly present. Hotel de la Coupole – MGallery reflects the cultural coexistence of the French and the indigenous hill tribes of Sa Pa – including the Hmong, Dao, Xa Pho, Tay, and Giay –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Throughout the property, lampshades echo traditional headscarves, while brocade patterns appear across walls, furnishings, and even the tiled base of the indoor swimming pool. Small bells suspended from the ceiling reference the sound of cattle returning to villages at dusk. The result is a layered



design language where European elegance meets highland textures and motifs.

With Hotel de la Coupole – MGallery by Sofitel, Bill Bensley has created a distinctive expression of luxury hospitality in Vietnam. More than a place to stay, it is an immersive environment where design, history, and storytelling are interwoven into a single experience. 🌟



화려한 여관

하노이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오페라하우스와 구시가지에서 도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카펠라 하노이는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이 결합된 독창적인 건축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1920년대 오페라 황금기를 풍미하던 예술가와 작곡가들을 위한 화려한 ‘여관’을 재현한 공간으로, 당시의 예술적 열기와 우아한 사교 문화를 현대적으로 되살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전 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하노이 오페라하우스는 예술이 절정에 이르는 무대로, 수많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과 명망 높은 공연자들이 이곳에서 무대를 펼쳤습니다. 또한 상류층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 역시 이곳을 찾아 음악을 감상하며 예술의 순간을 함께 향유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밤이면, 이들은 인근의 작은 여관에 자리한 바로 발걸음을 옮겨 서로 교류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함과 거리가 먼, 지극히

소박한 여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건축가 빌 벤슬리는 이 작은 여관에 머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에 이끌린 그는, 이 공간을 단순한 숙소가 아닌 특별한 장소로 재탄생시키고자 여관의 주인에게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고급 호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독특한 구조와 예술적 영혼을 그대로 살린 채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카펠라 하노이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1,000 점 이상의 무대 유물, 부조 장식, 조각 작품들이 이곳에 정교하게 배치되어, 호텔 전체를 하나의 ‘살아 있는 박물관’처럼 완성합니다. 그 안에서는 기억과 예술, 그리고 화려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유기적으로 공존합니다.

외관에서는 골드, 화이트, 크림 톤이 어우러져 프랑스의 고전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하노이 특유의 인도차이나 건축 감성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천사 조각상이 아오자이를 입고 눈을 쓴 모습, 프랑시스 로맨틱 발코니 구조 등 지역적 상상력이 더해진 디테일들이 곳곳에 녹아 있어, 공간 전체가 하나의 서사처럼 이어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1층 로비에 자리한 디바스라운지는 극장의 숨결을 그대로 담아낸 듯한 공간으로, 보르도 레드의 무대 커튼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원형 그대로 보존된 징크 바 카운터와 1700년대에 제작된 벽난로 유물이 함께 어우러져, 시간의 층위를 그대로 품은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 여행자들은 정교하게 완성된 각테일 한 잔에 몸을 맡기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오페라 디바들의 이야기와 감성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로비 구역은 마치 하나의 아트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천장을 받치듯 배치된 4개의 조각상입니다. 엘리베이터 홀 바로

옆에는 코트야드 스톤 아트워크 공간이 이어지며, 이곳의 부조 장식들은 파리의 팔레 드 라 포르트 도레 궁전 조각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작품은 베트남의 숙련된 장인들이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완성한 것으로, 높은 예술성과 장인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극장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도 함께 이어집니다. 레스토랑 백스테이지는 고급스러운 벨벳 레드 디테일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여행자들이 마치 무대의 막을 걷어 올리고 공연의 뒤편으로 들어서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트렁크, 의상, 고대 유물 같은 오브제와 함께 구성된 인테리어는 화려한 무대 뒤편을 연상시키며,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장하고 휴식하며 다음 무대를 준비하던 전성기 오페라 시대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 실내 수영장은 오페라 가수들의 목소리가 공연 이후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마치 하나의 천국과도 같은 공간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총 47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객실에는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객실은 건축 디테일과 공간 연출, 무대 의상, 그리고 아티스트 케이트 스펜서의 맞춤형 초상화 작업을 통해 오페라 예술가들의 전설적인 세계를 하나씩 펼쳐 보이듯 담아냅니다. 특히 최상층에 자리한 4개의 VIP 객실은 오페라 예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기교와 가장 찬란한 무대의 순간들을 기념하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이처럼 변치 않는 예술의 가치를 건축 언어로 풀어낸 카펠라는, 단순히 머무는 숙소를 넘어 여행자가 화려한 옛 수도의 미학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예술의 황금기를 체험하게 하는 공간으로 완성됩니다. ✨





The Capital's MOST THEATRICAL STAY

Located less than a five-minute walk from the Hanoi Opera House, an architectural icon of the capital, and the Old Quarter, Capella Hanoi blends Art Nouveau and Art Deco influences into a reinterpretation of a luxurious inn inspired by the golden age of opera in the 1920s.

Legend recalls the Opera House as a stage where art flourished, drawing celebrated performers while high society gathered in admiration. After performances, guests would drift to a nearby inn to meet, reflect, and continue the evening in conversation. It was, by all accounts, a modest place.

According to this narrative, architect Bill Bensley drew inspiration from the story of the inn and reimaged it as a world-class hotel, while preserving its artistic spirit and sense of place. This vision became Capella Hanoi.

Today, more than 1,000 theatrical artifacts, bas-reliefs, and sculptures sourced from around the world are displayed throughout the property, turning the

hotel into a living gallery where memory, art, and hospitality intersect.

From the exterior, a palette of yellow, white, and cream reflects French colonial nostalgia while complementing Hanoi's Indochine architecture. Local details, including rooftop angel statues dressed in áo dài and nón lá, sit alongside French-style balconies, creating a layered architectural narrative.

On the ground floor, Diva's Lounge evokes the atmosphere of a theatre, framed by deep red drapery. At its center are an antique zinc bar and a fireplace dating back to the 18th century. Guests are invited to experience cocktails inspired by legendary opera divas.

The elevator lobby resembles an art gallery, anchored by four sculptural caryatids supporting the ceiling above. Nearby, the Courtyard Stone Artwork features bas-reliefs inspired by the Palais de la Porte Dorée in Paris, handcrafted by Vietnamese artisans.

The Backstage restaurant continues the theatrical theme. Draped in velvet and framed by vintage trunks, costumes, and antiques, it recreates an opera backstage environment, where performers once prepared before stepping on stage. The indoor pool offers a quieter counterpoint, designed as a space of rest and recovery after performance.

The hotel features 47 rooms, each with a private balcony. Every room reflects a narrative

from the world of opera through architectural detail, curated objects, and bespoke artworks by Kate Spencer. On the top floor, four exclusive VIP suites pay tribute to the height of operatic performance and craftsmanship.

Inspired by the world of performance, Capella Hanoi is more than a luxurious stay in the capital. It brings together the history, atmosphere, and drama of opera in one immersive setting. ✨





귀족들의 대학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 리조트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귀족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 되어 이곳이 설계한 세계관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럭셔리 스테이를 넘어, 하나의 서사 속에 참여하는 경험으로 여행의 감각을 확장시켜 줍니다.

이 곳은 전 세계 JW 메리어트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가상의 대학’이라는 콘셉트로 설계된 공간으로, 1880년에 개교한 라마르크 대학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사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됩니다. 1940년, 이 학교는 갑작스럽게 폐교되었지만, 시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하나의 기억처럼 남아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건축가 빌 벤슬리는 이 버려진 가상의 대학을 다시 불러내듯 재해석하여, 현재의 JW 메리어트 푸꾸옥 5성급 리조트로 완성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상상력에서 출발한 설정이며, 동시에 전 세계 어떤 리조트와도 다른 독창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대학’에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농업, 동물학, 화학에 이르기까지 총 18개의 학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빌라는 하나의 ‘학과’로 상징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은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공간은 다소 기이할 만큼 독특한 개성을 드러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점의 수작업 물고기 그림, 곤충의 형태를 형상화한 가구와 오브제, 그리고 개인 정원 곳곳에 섬세하게 배치된 동물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실험적 예술 세계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마르크 대학이라는 서사가 한층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리조트 곳곳에 전시된 5,000점이 넘는 고대 유물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오브제는 각각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 조각으로 존재합니다. 빌 벤슬리의 팀은 이 ‘라마르크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전 세계 40여 개국을 직접 누비며, 마치 흠어진

기억을 수집하듯 오브제 하나하나를 찾아 모았습니다.

또한 리조트의 각 구역은 단순한 구획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이자 하나의 이야기를 품은 독립된 세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 핑크 펄 바이 올리비에 E는 바닷가에 자리한 선명한 핑크빛 저택으로, 전설적인 사교계 인물 펄 콜린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화려하고도 품격 있는 미식 세계를 서사적으로 풀어내며, 미쉐린 스타 셰프의 손끝에서 완성된 메뉴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한층 더 극적으로 확장합니다.

또한 캔텔 스파 바이 JW는 한때 ‘균류학과’로 설정된 공간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진 식물 벽화와 버섯 형태를 닮은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마치 오래된 연구소를 연상시킵니다. 이 스파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방문객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주인공이 되어 동화 속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상의 대학’으로 설계된 이 리조트는 가장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놀라울 정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독립된

예술 세계를 완성해 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전 세계의 부유층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단지 독창적인 건축적 서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 완벽에 가까운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전용 수영장, 푸른 정원, 전담 버틀러 서비스, 그리고 언제나 준비된 공항 픽업 서비스까지—머무는 순간 모든 것이 개인에게 맞춰 움직입니다. 이곳은 인도 재벌을 비롯한 세계 최상위층이 선택하는 결혼식 장소로도 유명하며, 그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완성하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푸꾸옥에서 ‘전설적인 대학’의 신입생이 되는 이 특별한 여정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나요? 🌟

리조트 인덜전스 혜택

- JW 메리어트 푸꾸옥 에메랄드 베이에서 최소 3박 이상 투숙 시, 여유롭고 완벽한 휴식을 위한 특별한 ‘리조트 인덜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선택하면 리조트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0달러 상당의 크레딧이 제공되어, 바다를 마주한 레스토랑에서의 미식 경험부터 스파 바이 JW에서의 깊이 있는 휴식, 그리고 매일 이어지는 다양한 리조트 액티비티까지 폭넓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객실 상황에 따라 오후 6시까지 늦은 체크아웃이 가능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여유로운 휴양의 흐름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The Fictional Campus OF PHU QUOC

Upon check-in at JW Marriott Phu Quoc Emerald Bay Resort, guests are invited to step into the role of an aristocratic freshman in an immersive experience that feels more whimsical and expansive than a conventional luxury escape.

This is the first and only JW Marriott property in the world designed around a fictional university: Lamarck University, said to have opened in 1880. According to the narrative, the institution closed abruptly in 1940, yet its legacy endures. In 2015, ingenious resort designer Bill Bensley reimagined the abandoned campus as the five-star resort that stands today.

While the backstory is entirely a figment of imagination, it serves as the catalyst for a resort unlike any other on earth. This “university” features 18 faculties, ranging from natur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to agriculture, zoology, and chemistry. Each villa is envisioned as a distinct department of Lamarck University, ensuring no two spaces are alike. Some are wildly spontaneous, while others lean toward the eccentric, with walls adorned with hand-painted fish illustrations, vivid insect-inspired furnishings, and intricate animal sculptures set within private gardens.

What makes the story of Lamarck University feel so tangible is the collection of more than 5,000 genuine antiques





displayed throughout the property, each tied to the school's imagined history. Bensley's team traveled to 40 countries to gather these historical fragments.

Even individual venues within the resort extend the narrative.

The Pink Pearl by Olivier E. restaurant is a vibrant beachfront pink mansion that tells the story of Madame Pearl Collins, a legendary socialite of Pearl Island. It offers an opulent dining experience with a menu created by a Michelin-starred chef.

Chanterelle Spa by JW was formerly conceived as the "Department of Mycology," featuring hand-painted botanical murals and mushroom-inspired furnishings that evoke a whimsical research institute. The space feels like a passage into a fairytale world, not unlike Alice in Wonderland.

Every detail within this mythical academy has been carefully considered, reflecting an exceptional level of creativity and world-building.

However, the appeal of the resort extends beyond its storytelling. Guests are drawn equally to its sense of ease and privacy: private pools, landscaped gardens, dedicated butler service, and seamless airport transfers. It has also become a favored destination for destination weddings hosted by high-profile international guests. And the final invitation remains simple: are you ready to step into the role of a freshman at this remarkable academy? 🍷

Stay longer & Indulge More

- Treat yourself to a carefree getaway at JW Marriott Phu Quoc Emerald Bay with a minimum three-night stay. Book this exclusive package to receive a USD 100 resort credit, allowing you to explore world-class experiences, from beachfront fine dining and deep relaxation at Spa by JW to a curated selection of daily resort activities.
- Your stay is made even more seamless with the privilege of late checkout until 6 PM (subject to availability).





한 편의 사랑 이야기처럼

아말피 해안의 감성을 담은 화사한 색채가 석양과 어우러져 낭만적인 풍경을 완성하는 라 페스타 푸꾸옥, 큐리오 컬렉션 바이 힐튼은 마치 한 편의 사랑 이야기 속에 들어온 듯한 특별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선셋 타운 중심부에 자리한 라 페스타 푸꾸옥, 큐리오 컬렉션 바이 힐튼은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의 젊은 연인과 그들의 자유로운 여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이어지는 작은 집들과 창문 하나하나에는 사랑과 자유를 향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마치 한 편의 로맨스 속으로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지중해 해안 마을을 연상시키는 색채와 건축적 요소도 이곳의 매력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화이트 컬러를 중심으로 핑크, 블루, 그린 색감의 테라코타 돔 지붕과 섬세한 모자이크 장식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풍경을 완성합니다.

아말피 해안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라 페스타 푸꾸옥, 큐리오 컬렉션 바이 힐튼에는 베트남만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도자기로 만든 예술 작품과 현지 장인의 손길로 완성된 라탄 공예품들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객실 곳곳에서도 푸꾸옥만의 감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커튼과 유카타 등에는 푸꾸옥을 상징하는 진주 조개 문양이 섬세하게 담겨 있어, 지역의 정체성을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라 페스타에서 가장 짙은 예술적 감성을 품은 공간은 테르차(Terza)입니다.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현지의 삶과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남부 베트남 출신 음악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탄생한 이곳은, 마치 한편의 예술 작품처럼 공간 전체에 독창적인 서사를 담아냅니다. 테르차의 특별함은 각 공간이 저마다의 개성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심하게 설계된 29개의 스위트 및 듀플렉스 객실은 각각 다른 예술가의 세계를 표현하듯 꾸며져 있으며, 소렌토 스위트 컬렉션은 여행자들을 다채로운 영감의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객실 문을 여는 순간, 투숙객은 자신만의 예술적 감성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가의 서재(The Writer’s Nook)’가 문학 작품이 탄생하는 고요한 공간으로, 섬세한 디테일을 통해 내면의 깊이와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한다면, ‘화가의 아틀리에(The Painter’s



Lodge)’는 풍부한 색채와 감성이 어우러진 예술적 영감의 공간으로 펼쳐집니다. ‘조각가의 작업실(The Sculptor’s Chamber)’은 형태와 구조가 만들어내는 미학을 담아내고, ‘음악가의 플랫(The Musician’s Flat)’은 리듬과 선율의 흐름을 공간 속에 녹여내며 우아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테르차의 예술적 감성은 객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곳의 레스토랑과 바에서도 그 철학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테르차에 자리한 다이닝 공간과 바는

마치 작은 무대처럼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미식은 단순히 맛보는 것을 넘어, 오감으로 경험하고 감성을 나누는 하나의 예술로 완성됩니다.

호텔을 나서면 선셋 타운의 골목골목을 거닐며 이곳만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우아한 실루엣을 드리운 키스 브리지를 바라보거나, 매일 밤 펼쳐지는 음악과 빛의 축제 속에서 선셋 타운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입니다. 라 페스타 푸꾸옥, 큐리오 컬렉션 바이 힐튼은 예술과 사람, 그리고 새로운 영감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만남과 설렘 가득한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자, 한 번의 방문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특별한 기억을 선사합니다.🌟





A Coastal LOVE STORY

Breathing the air of the Amalfi Coast, with vibrant colors reflecting under the sunset, La Festa Phu Quoc, Curio Collection by Hilton is as beautiful as a love story in the town of romance

Set in the heart of Phu Quoc's Sunset Town, the resort's design tracks the fictional journey of a young couple roaming from Italy's Amalfi Coast to uncharted lands. Every cottage facade and window frame across the property tells a story of romance and uninhibited freedom.

Guests will immediately recognize the iconic textures of a Mediterranean seaside village: stark whitewashed walls, terracotta-tiled domes in pastel pinks, and vibrant pops of blue, green, and intricate mosaic tilework.

Yet, for all its Italian inspiration, La Festa Phu Quoc remains rooted in its Vietnamese identity. The lobby showcases curated ceramic art installations and hand-woven straw bags crafted by local artisans. Inside the guest rooms, the detailing—from the window drapes to

the custom Yukata robes—incorporates mother-of-pearl patterns, a direct nod to Phu Quoc's pearling heritage.

The artistic core of the property lives within the Terza enclave. Inspired by the life of a Southern Vietnamese musician who traveled the globe only to find his muse in local daily rhythms, Terza prioritizes deep personalization. Across 29 tailored suites and duplexes, the Sorrento Suites collection serves as an architectural compass guiding guests toward their own artistic alter egos.

Each space serves a distinct creative purpose. The Writer's

Nook acts as a quiet sanctuary for prose and poetry, with subtle interior cues detailing emotional depth and untold stories.

Conversely, The Painter's Lodge explodes with the vivid colors and raw emotions of a romantic painter. The Sculptor's Chamber plays with high-contrast visual geometry and form, while The Musician's Flat translates fluid auditory rhythms into sleek, physical design.

This creative pulse isn't confined to the rooms; it dictates Terza's entire culinary and nightlife footprint. The onsite restaurants and bars function as

intimate stages, transforming dining from a standard menu choice into an experiential sensory event.

Outside the hotel lobby, the experience continues. Guests can explore the winding streets of Sunset Town, watch the architectural silhouette of the Kiss Bridge mirror over the ocean, or dive into the high-energy light and sound festivals hosted every evening. Ultimately, La Festa Phu Quoc isn't just a place to stay—it is a launchpad for art, serendipitous encounters, and bucket-list adventures. 🌟



효(孝)의 계절, 마음을 기댈 곳

매년 음력 7월 보름이 되면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한풀 꺾이고,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빗방울도 한결 느긋해집니다. 사찰 마당에는 연꽃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은은한 향내와 맑은 종소리가 주변을 감싸는 이 계절. 사람들의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의 울림으로 이어집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경건함과 따뜻한 정서가 깃든 특별한 명절, 부란(Vu Lan)을 맞이합니다.

글: 디엵 사
사진: 응우옌 민 뚜, 레 비엣 카인

먼 길을 떠나다 보면 문득 집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주소와 번지, 거리 이름이 있고 열쇠로 문을 여는 그런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

그 집은 바로 부모입니다. 삶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이자,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란의 계절이 찾아오면, 베트남의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부처님과 조상님께 정성껏 등을 올립니다. 그 불빛에는 부모를 향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란은 본래 불교 경전에 전해지는 ‘목건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한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부란은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 삶의 가치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전통 신앙과 효를 중시하는 동양의 가치관,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온 베트남 사람들의 정서가 어우러지며 오늘날의 부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란이 되면 종교의 유무를 떠나 많은 이들이 사찰을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조상께 향을 올리고, 부모님과 마주 앉아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함께하며 마음을 나눕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되새기고, 소중한 인연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베트남 사람들이 간직해 온 부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베트남에는 부란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부란이 유독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빼어난 풍경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자연과 건축, 신앙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남부의 지붕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

해발 986m에 우뚝 솟은 바덴산은 베트남 동남부 평야 한가운데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위에 홀로 서 있는 듯 보이지만, 결코 외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라볼수록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기둥처럼 느껴지며, 남부 지역의 기운이 모여드는 영적인



중심지로서의 위엄을 품고 있습니다. 부란의 계절이 되면 이곳에는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듭니다. 저마다의 감사와 기원, 그리고 부모를 향한 효심을 담은 등불이 산 정상에 은은한 빛을 더하며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여로부터 이곳은 남부 지역의 신성한 기운이 모이는 영험한 명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맞닿는 곳, 산자락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마저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남긴 향내를 머금고 흐르는 곳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부란의 계절이 찾아오면 바덴산은 더욱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움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첫 케이블카가 조용히 승강장을 떠나 이슬 머금은 숲 위를 유영하듯 지나고, 구름이 머무는 산 정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올립니다. 정상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산바람이 가볍게 어깨를 스치고 눈앞에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솟아 있는 서보다산 관세음보살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깊은 존재감을 품은 그 모습은 바라보는 이의 마음을 절로 경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덴산이 가장 눈부신 순간은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황금빛 노을이 산마루를 물들이면 광장에는 수천 개의 등불이 차례로 빛을 밝히고, 어느새 산 정상은 마치 별빛이 내려앉은 하늘 정원처럼 신비로운 풍경으로 채워집니다.

부란 기간에 바덴산을 찾는 이들 중에는 이른 아침 시간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 8시 이전의 바덴산은 햇살이 부드럽고, 정상에는 가을을 닮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 산책과 참배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른 뒤, 먼저 영산성모전(靈山聖母殿) 전각에서 향을 올리고, 정상에 올라 서보다산 관세음보살상과 구나함모니불상, 미륵보살상을 차례로 참배합니다. 이후에는 천천히 산길을 거닐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산 정상에 깃든 고요한 기운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참배를 마친 뒤에는 많은 이들이 부란 의식 공간에서 가슴에 장미꽃을 달고, 부모님의

1. Fansipan, Sa Pa

2,3. Lễ dâng đăng tại núi Bà Đen, Tây Ninh





건강과 평안, 그리고 차마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기도문에 담아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란의 계절에 바덴산을 찾았다면,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해 질 무렵까지 머물며 봉등 의식(奉燈儀式)을 기다립니다.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산자락 위로 마지막 햇살이 서서히 물러가고, 하늘이 꿀빛 황금색에서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관세음보살 광장은 수천 개의 따뜻한 등불로 환하게 빛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기도를 올립니다. 등불 하나마다 담긴 소망은 모두 다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까지, 그리고 그 빛이 넓은 어둠을 밀어내며 광장 가득 번져 나갈 때면, 사람들은 문득 자신의 마음 또한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와 공경, 그리고 그리움이 빚어낸 따뜻한 빛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판시판, 성스러운 봉우리에 피어난 한 송이 장미

바덴산이 남부 지역의 신성한 기운을 품고 있다면, 판시판은 웅장한 서북부 하늘 아래에서 장엄하면서도 시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거칠고 웅대한 자연의 힘과 서정적인 풍경이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판시판입니다.

오랫동안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 불려온 판시판은 황련산맥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또한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품고 있어 예로부터 ‘민족의 영적인 기운이 시작되는 곳’으로도 불려왔습니다. 그렇기에 부란의 계절에 판시판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산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것은 부모와 조상,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며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곧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과도 같습니다.

판시판의 부란은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가 케이블카를 타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케이블카는 므엥화 계곡 위를 유유히 지나고, 푸른 숲과 물결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계단식 논을 가로지르며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눈앞을 스치는 새하얀 구름과 마주하게 되면, 마치 하늘과 땅의 경계 사이를 걷는 듯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해발 3,143m의 정상에 오르면,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웅장하면서도 고요한 판시판 아미타불 대불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개 사이로 모습을 비추는 사찰의 곡선 지붕,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이끼 낀 돌계단, 그리고 산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지는 종소리까지. 이 모든 풍경이 어우러져 마치 속세를 잠시 벗어난 듯한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곳에 서 있노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걸음을 늦추고, 목소리마저 낮추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부란을 맞아 판시판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가족들은 함께 향을 올리며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가슴에는 붉은 장미꽃을 달며 효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또한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소망을 비단 띠에 적어 걸고, 부모님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자손들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기를 정성껏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마친 뒤에는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채식 한 끼를 나눕니다. 반삼(Vân Sam) 레스토랑이나 몽족 마을 ‘반 마이(Bản Mây)’의 화롯가에서 이어지는 식사입니다. 버섯으로 끓인 맑고 달큰한 국, 짙은 초록빛을 머금은 산나물 데침,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연두부 한 조각, 그리고 대나무 통밥인 껌람(cơm lam), 오색 찹쌀밥인 쏘이 응우색(xôi ngũ sắc)에 고소하게 볶은 깨소금을 곁들인 한 접시까지, 여기에 은은하게 김이 피어오르는 달콤한 허브차 한 잔이 차가운 산바람 사이로 향을 퍼뜨립니다. 소박한 음식들이지만 구름에 둘러싸인 산의 풍경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온기 속에서 그 맛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판시판의 오후는 언제나 특별한 방식으로 아름답게 저물어갑니다.

해가 서서히 먼 산 너머로 기울어지면, 붉고 주황빛의 빛이 구름 바다 위를 덮어 금빛처럼 찬란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온 세상이 마치 한 겹의 황금빛으로 입혀진 듯 반짝이고, 어떤 날에는 지평선 위로 무지개빛이 층층이 펼쳐져 더욱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잃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래도록 풍경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마음 한편에는 모두 가족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여행과 낯선 풍경, 그리고 끝없이 넓은 세상을 지나오더라도, 결국 가장 돌아가고 싶은 곳은 늘 변함없이 부모님이 따뜻한 불빛 아래 기다리고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

The season OF FILIAL *love*

BY DIEP SA
PHOTOS: NGUYEN MINH TU; LE VIET KHANH

Each year, on the full moon of the seventh lunar month, a spirit of gratitude and remembrance settles across Vietnam. From the cloud-capped summit of Fansipan in the north to the sacred heights of Ba Den Mountain in the south, families gather to honor their parents, offer prayers for their well-being, and reflect on the bonds that shape their lives. At the heart of this tradition is the festival of Vu Lan, one of Vietnam's most cherished celebrations of filial love.

Long journeys often make people think of home. Not necessarily the place where they live, marked by an address or a familiar front door, but the home found in the people who are always waiting for their return, no matter how long they have been away.

That home is our parents, the refuge we turn to amid life's storms, the steady shore that remains when everything else feels uncertain, the light that never goes out. Perhaps that is why, when the festival of Vu Lan arrives, Vietnamese sons and daughters offer lanterns and prayers to the Buddhas and their ancestors, wishing for health, peace, and happiness for those who gave them life.

Vu Lan traces its origins to the Buddhist tale of Maudgalyayana rescuing his mother from suffering. Yet over time, the occasion evolved beyond the boundaries of a religious observance and became part of the Vietnamese way of life.

It found harmony with the tradition of ancestor worship. It embraced the East Asian reverence for filial piety. It reflected the Vietnamese habit of expressing love through actions rather than words. Together, these influences shaped a day when many people, regardless of faith, feel compelled to return to a temple, go home, light a stick of incense, and spend a little more time with their parents than they might on an ordinary day.





1

1. Fansipan, Sa Pa
2. Rose on lapel
ritual

Across Vietnam, there are destinations that draw visitors from hundreds, even thousands of miles away during Vu Lan. Their appeal lies not only in their beauty, but also in the way nature, architecture, faith, and human stories come together in a setting that feels profoundly meaningful.

A SEA OF LANTERNS ABOVE SOUTHERN VIETNAM

Rising 986 meters above sea level, Ba Den Mountain stands as one of the most striking landmarks in Southern Vietnam. Surrounded by vast plains stretching to the horizon, the mountain stands alone yet never appears lonely. The longer one gazes upon it, the more it resembles a bridge between earth and sky, a place long regarded as

a spiritual heartland of southern Vietnam.

For generations, people have regarded Ba Den Mountain as a sacred site where heaven and earth converge, where even the wind brushing across the mountainside seems to carry the lingering fragrance of incense from countless pilgrimage seasons.

During the festival of Vu Lan, the mountain reveals a beauty all its own.

It begins at dawn, when the first cable car cabins glide silently above forests still heavy with dew, carrying visitors toward the clouds. It continues the moment one steps onto the summit plaza, where cool mountain breezes greet visitors and reveal the majestic Tay Bo Da Son Buddha Statue standing serenely beneath a brilliant blue sky. Yet

perhaps the mountain is at its most enchanting at dusk, when thousands of lanterns illuminate the plaza like stars brought down from the heavens.

Many visitors choose to arrive before eight o'clock in the morning during Vu Lan. At that hour, the sunlight remains gentle and the air carries the freshness of early autumn. It is the perfect time to ride the cable car to the temples, offer incense at Linh Son Thanh Mau Temple, present flowers before the Tay Bo Da Son Buddha Statue, the Konagamana Buddha Statue, and the Maitreya Bodhisattva Statue, then wander slowly through the sacred landscape.

After their prayers, visitors often receive a Vu Lan rose to wear on their chest before writing petitions for their parents, offering wishes for health,

peace, and perhaps expressing sentiments long left unspoken.

Most visitors remain until evening to take part in the lantern offering ceremony, a moment many consider the most meaningful part of the day.

As the final sunlight slips behind the mountains and the sky turns from honey gold to deep violet, the Tay Bo Da Son Square begins to glow with thousands of warm lanterns. Each lantern carries a prayer. Each light holds a hope. As their collective glow spreads across the gathering darkness, many people find themselves overwhelmed by gratitude, remembrance, and love.

FANSIPAN – A BLOSSOM ON THE SACRED SUMMIT

If Ba Den Mountain embodies the spiritual character of Southern Vietnam, Fansipan reflects the grandeur of the Northwest, majestic and expansive, dramatic yet deeply poetic.

Known as the Roof of Indochina, Fansipan has long been regarded not only as the pride of the Hoang Lien Son Range but also as an important

spiritual landmark, thanks to its rich cultural, historical, and religious significance. For many Vietnamese, a journey to Fansipan during Vu Lan feels less like traveling to a destination and more like returning home.

The experience begins in the morning mist.

Between eight and nine o'clock, the cable car ride becomes a journey through some of the most breathtaking scenery in northern Vietnam. Cabins glide above Muong Hoa Valley, passing emerald forests and terraced rice fields that ripple across the mountainsides like waves before entering layers of white cloud floating at eye level. The sensation feels as though one is traveling along the threshold between earth and sky.

At an elevation of 3,143 meters, surrounded by drifting clouds, the Great Amitabha Buddha Statue rises in serene majesty. Temple roofs emerge and disappear in the mist. Moss-covered stone stairways wind through the complex. The sound of bells dissolves into the mountain wind. Together, these elements create a space where visitors naturally slow their pace and lower their voices.

Many families choose to bring their parents to Fansipan during Vu Lan as a gift of reunion. Here, they offer incense, pin a red rose to their chest, write wishes on prayer ribbons, and send blessings for their parents' health and happiness.

Afterward, families gather for a warm vegetarian meal at Van Sam Restaurant or around the fires of local ethnic communities in May Village. Sweet mushroom soup, freshly boiled mountain greens, delicate tofu, bamboo-tube rice, five-colored sticky rice served with roasted sesame salt, and herbal tea fragrant in the cool mountain air. These simple dishes seem to taste extraordinary amid the beauty of the cloud-covered peaks and the comfort of family gathered close by.

Evening arrives differently at Fansipan. As the sun slowly disappears behind distant mountain ranges, golden-red light spreads across the sea of clouds, covering the landscape in a radiant glow. On some days, layers of rainbow colors appear along the horizon, creating a spectacle that feels almost otherworldly.

Standing before such a scene, many people fall silent. They simply watch. And perhaps, in that moment, each person is thinking of their family.

Because after all the journeys taken, all the landscapes crossed, and all the horizons explored, the place we most long to return to is still the one where our parents sit waiting beneath the warm glow of a lamp in a familiar home. 🌸





푸꾸옥에서 만나는 독일 맥주의 향연

푸른 바다와 황금빛 햇살, 그리고 1년 365일 밤마다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놀이 속에서 썬 바바리아 가스트로 펍은
바이에른의 정취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글: HUỖNH ĐỨC

독일의 맥주 문화는 단순히
오래된 비어가든이나 유서 깊은
연회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사람과 공간,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에른의 정신은 푸꾸옥(안장성) 해변에
자리한 썬 바바리아 가스트로펍에서
새로운 형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이야기는 푸꾸옥 브루
하우스에서 직접 양조한 수제 맥주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독일의 100년 전통
레스피를 기반으로 완성된 맥주는 나무와
철재, 그리고 햇살이 스며드는 아치형 공간

속에서 제공됩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다양한 맥주 탭을 앞세우는 전통적인 비어
레스토랑과는 결이 다릅니다. 한 잔의
맥주를 중심으로 경험이 층층이 확장되는
다층적인 구성을 지향합니다. 바이에른의
본질적인 풍미를 시작점으로 삼고, 그 위에
바다의 공기와 예술적 감성이 더해지며
하나의 완성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경험 확장의 방식은 썬 바바리아
가스트로 펍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2026년 5월 1일, 기네스
세계기록은 썬 바바리아 가스트로펍을
공식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변 호프”

으로 인증했습니다. 총 면적은 6,825.22
㎡, 수용 인원은 5,000석에 달하며, 개장
2년 만에 규모를 5배로 확장한 기록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이는 측량 오차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관리한 결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밤이 내려앉으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은 곧 하나의 ‘예술을
감상하는 초대권’이 됩니다. 눈앞의 바다는
거대한 무대로 변해, “심포니 오브 더 씨”
라는 초대형 쇼가 펼쳐집니다. 제트스키와
플라이보드의 역동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폭죽과 워터쇼가 어우러진 장면은 하나의
장대한 스펙터클을 완성합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여행객들은 상징적인 건축물인
키스 브리지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예술쇼 “키스 오브 더 씨”
에서 펼쳐지는 또 한 번의 불꽃쇼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든 쉽게
찾아보기 힘든, 매우 희소한 경험입니다.

독일 맥주의 시원한 풍미와 함께, 아시아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닌 푸꾸옥은 이제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세계적인 여행지들과
견줄 만한 새로운 수준의 경험 중심 허브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German beer culture has never been defined solely by beer gardens or centuries-old halls. At its heart lies a sense of connection between people, place, and community. That spirit has found a new expression at Sun Bavaria GastroPub on the shores of Phu Quoc Island.

Here, the story begins with craft beers brewed on site at Phu Quoc Brew House using traditional German recipes that have stood the test of time. They are served in a striking setting of timber, steel, and sunlit arches. Rather than following the path of traditional beer restaurants that compete through the number of taps they offer, Sun Bavaria GastroPub embraces a more layered experience, using the authentic flavors of Bavaria as a starting point and allowing the ocean and the arts to complete the journey.

It is this expanded approach to the beer experience that has helped define Sun Bavaria GastroPub. On May 1, 2026, Guinness World Records officially recognized the venue as the world's largest beachfront beer restaurant, covering 6,825.22 square meters and accommodating up to 5,000 guests. In just two years, its scale has expanded fivefold, with every measurement verified down to the millimeter.

But those numbers tell only part of the story. As night falls, guests can sip a perfectly chilled beer while the waters of the Gulf of Thailand become the stage for the spectacular Symphony of the Sea, where jetski and flyboard performances unfold amid dramatic fireworks and special effects.

From the same vantage point, they can also enjoy uninterrupted views of the iconic Kiss Bridge and a second fireworks display that concludes the multimedia show Kiss of the Sea – all combining to create an unforgettable evening of entertainment.

So make sure you visit Sun Bavaria GastroPub, where you can enjoy the crisp taste of German beer, experience the spirit of *Gemütlichkeit*, and discover another side of Phu Quoc – an island whose appeal now extends well beyond its beaches, with cultural attractions and entertainment experiences helping to cement its reputation as one of the region's most compelling destinations. 🌟



A Taste of Bavarian Beer ON THE SHORES OF PHU QUOC

Turquoise seas, golden sunshine, fireworks lighting up the sky every night of the year, and an ice-cold German beer in hand. Doesn't that sound like heaven? Welcome to Sun Bavaria GastroPub, where Bavarian brewing traditions meet the vibrant seaside energy of Phu Quoc.

BY HUYNH DUC

S.P.A

5성급 서비스와 ‘휴양형 항공’ 기준에 맞춰 설계된
객실 인테리어, 푸꾸옥과 세계 각국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잇는 신규 노선까지,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가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ive-star service, resort-inspired cabin design, an expanding
network of routes linking Phu Quoc with some of the world's
most exciting destinations, and many other distinctive touches
await passengers flying with Sun PhuQuoc Airways.*





취향한 지 채 7개월도 되지 않은
썸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자신만의
5성급 서비스 DNA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5성급 서비스의 기준을 세우다

하늘 위에 새겨진 브랜드의 철학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5성급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수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각 항공사가 추구하는 고유한 철학과 가치는 브랜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품격과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싱가포르항공은 품격과 우아함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독자적인 서비스 철학을 완성해 왔습니다. 브랜드의 상징인 ‘싱가포르 걸’은 세심한 배려와 변함없는 서비스 정신을 상징하며, 항공사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수준 높은 기내식, 첨단 기단이 조화를 이루며, 싱가포르항공은 세계 항공업계가 주목하는 5성급 서비스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일본공수(ANA)는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문화인 ‘오모테나시’ 정신을 서비스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이 말하기 전에 먼저 헤아리는 세심한 배려와 진정성 있는 응대는 비행 내내 편안함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그 결과, 한 번의 비행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마치 ‘구름 위의 오아시스’에 머무는 듯한 여유로운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카타르항공은 “Excellence in everything we do” (모든 순간에서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서비스 철학 아래, 세심함과 일관성, 그리고 개인 맞춤형 경험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비즈니스 클래스 큐스위트는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공간 구성과 더블베드, 독립형 업무 공간을 통해 새로운 비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다인 온 디맨드 서비스와 수준 높은 기내 다이닝은 카타르항공이 추구하는 5성급 서비스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하늘 위의 휴양’을 선사하는 베트남 항공사

베트남의 썸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취향 7개월 만에 자신만의 차별화된 5성급 서비스 철학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휴양 산업의 확대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행 경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휴양’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담아낸 썬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만의 첫 번째 경험 공간입니다. 단순한 대기 공간을 넘어 여행의 설렘과 휴식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공간으로, 베트남 공항 라운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문화와 푸꾸옥의 매력을 담아낸 노이바이공항의 ‘웜 럭셔리’ 공간에서부터, 리조트 디자인의 거장 빌 벤슬리가 1920년대 항공 아카데미를 모티프로 완성한 푸꾸옥 라운지에 이르기까지, 공간 곳곳에 담긴 세심한 디테일은 여행자에게 특별한 감성과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서비스의 품격은 미식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요리 장인 아인 뚜엣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메뉴는 전통의 깊은 맛과 정성을 담아냅니다. 최소 12시간 이상 정성껏 우려낸 육수로 완성한 하노이식 쌀국수와 본연의 조리법을 충실히 재현한 분목, 분짜는 한 그릇의 음식 속에 베트남의 미식 문화를 담아냅니다. 또한 매일 새롭게 발효종을 배양해 만드는데릭 카이저의 빵, 100% 아라비카 원두의 풍미를 담은

텔링고-카펠라 커피, 그리고 TWG 티가 어우러져 동서양 미식의 조화를 완성합니다.

썬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장 여유로운 여행의 순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섬세한 서비스와 편안한 공간 속에서 진정한 휴양의 여정이 시작되며, 모든 경험은 여행의 설렘을 더욱 깊게 완성합니다.

썬 이그제큐티브 라운지가 ‘하늘 위의 휴양’의 첫 장을 연다면, 객실승무원들은 그 이야기를 하늘 위에서 완성해 갑니다. 전문성과 진심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는 단순한 응대를 넘어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만의 확대 문화를 전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은 따뜻한 인사와 환한 미소, 품격 있는 서비스 하나하나에는 고객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가 추구하는 서비스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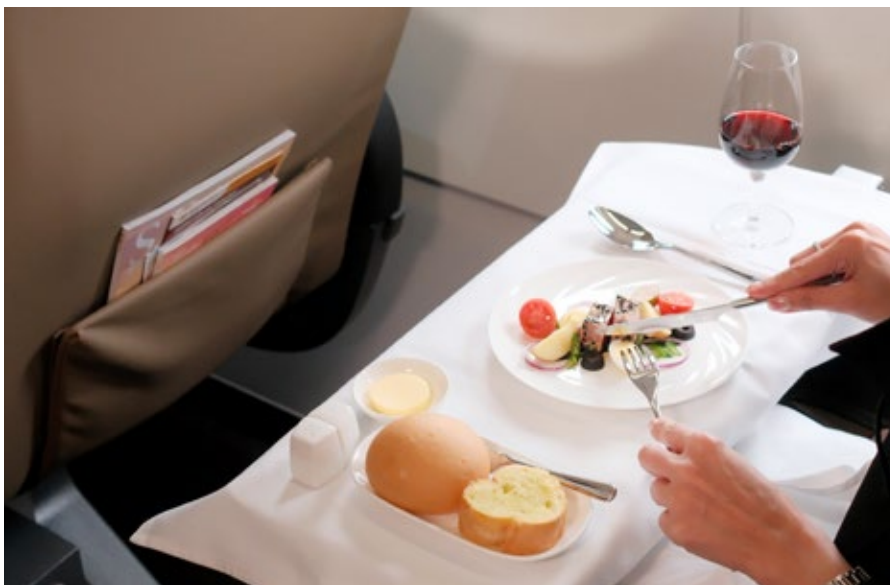
국제적인 서비스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객실승무원들은 썬그룹이 추구하는 확대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세심하게 살피고 한발 앞서 배려합니다. 고령 승객과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세심한 지원은 물론, 특별한 기념일이나 생일을 맞은 승객에게 1만 미터 상공에서

뜻밖의 축하와 감동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담은 세심한 배려는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만의 서비스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 번의 비행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따뜻한 휴식과 여유를 선사하는 특별한 휴양의 여정으로 완성됩니다.

그룹 위에서 펼쳐지는 미식의 순간도 특별합니다. 정통 베트남 가정식의 따뜻한 정취를 담은 메뉴부터 엄선된 아시아·유럽식 요리, 향긋한 TWG 티와 독일 정통 방식으로 빚어낸 선 크래프트비어, 그리고 베트남 커피의 본고장 럽동에서 온 깊은 풍미의 커피까지, 하늘 위에서도 베트남의 맛과 세계의 미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 위의 즐거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최신 무선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음악과 게임, 여행·미식 프로그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베트남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은 작품, 그리고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인기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전용 콘텐츠도 함께 마련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콘텐츠는 두 달마다 새로운 테마로 업데이트되며, 계절과 여행 시즌, 주요 기념일에 맞춰 엄선됩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이야기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으로 비행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완성합니다.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지상에서 하늘 위까지 이어지는 모든 여정 속에 자신만의 브랜드 철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객과 마주하는 모든 순간은 진심 어린 확대에서 시작되고, 그 정성은 품격 있는 서비스와 섬세한 경험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한 번의 비행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온전한 휴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특별한 휴양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



The *five-star* philosophy

Although Sun PhuQuoc Airways has been in operation for less than seven months, the airline is steadily shaping its own distinctive five star service DNA.

THE SOUL OF EVERY AIRLINE BRAND

In the global aviation industry, five star service is measured not only by amenities and comfort, but also by a unique philosophy that defines the soul and enduring value of each airline brand.

Singapore Airlines has built its service philosophy around refinement and elegance, with the iconic “Singapore Girl” representing a style of service that is thoughtful, attentive, and consistently delivered.

Personalized experiences, Michelin level cuisine, and a modern fleet have helped establish the airline as a benchmark for international five star service.

Meanwhile, Qatar Airways is guided by its principle of “Excellence in everything we do,” focusing on personalization, sophistication, and consistency. The airline demonstrates its premium service standards through its renowned Qsuite Business Class, which set a new industry benchmark with sliding privacy doors, double beds, and fully private workspaces. Its five star “Dine on Demand” service allows passengers to enjoy dishes prepared by international chefs at any time according to their personal preferences.

A VIETNAMESE AIRLINE WITH A “RESORT IN THE SKY” PHILOSOPHY

In Vietnam, Sun PhuQuoc Airways, despite having operated for only seven months, has already chosen a distinctive five star service philosophy of its own, shaping its identity through the spirit of hospitality drawn from the resort industry.

Embodying the full spirit of a resort experience, the Sun Executive Lounge, the first unique touchpoint of the Sun



PhuQuoc Airways journey, has been designed as an exclusive and premium space that contributes to defining a new generation of airport lounges in Vietnam.

From the warm luxury atmosphere of the Noi Bai lounge, which celebrates Vietnamese cultural identity and the beauty of Phu Quoc, to the Phu Quoc lounge designed by resort visionary Bill Bensley and inspired by aviation academies of the 1920s, every detail is intended to create an emotionally engaging experience.

The airline's service standards are also reflected through a carefully curated culinary offering overseen by renowned Vietnamese culinary artisan Anh Tuyet. Few airport lounges allow passengers to enjoy a bowl of pho prepared according to traditional Hanoi methods, with broth simmered for at least twelve hours, or authentic bowls of bun moc and bun cha prepared in their original style and spirit. International culinary excellence is represented through Eric Kayser breads made with fresh sourdough starter prepared daily, Delingoo Capella coffee crafted from 100 percent Arabica beans, and the acclaimed TWG tea collection.

More than simply a waiting area, Sun Executive Lounge transforms waiting time into a moment of relaxation, enjoyment, and sensory indulgence. It is here that the resort style journey begins, with every touchpoint thoughtfully designed to deliver a genuine sense of hospitality and leisure.



If Sun Executive Lounge marks the beginning of the resort inspired travel experience on the ground, the cabin crew are the ones who continue and complete that experience in the sky. With professionalism and genuine dedication, every Sun PhuQuoc Airways flight attendant not only performs a service role but also embodies the airline's culture of hospitality. The signature greeting with both hands placed over the heart, warm smiles, and attentive service all reflect the airline's service philosophy.

Above the clouds, passengers can also enjoy cuisine rich in cultural identity, from traditional Vietnamese home style meals and carefully selected Asian and European dishes to premium TWG tea, authentic German style Sun KraftBeer craft beer, and coffee sourced from Vietnam's renowned Lam Dong highlands.

SPA flights are equipped with a modern wireless entertainment system featuring a diverse onboard content library. Passengers can access music, games, travel and culinary television programs, Hollywood blockbusters, Vietnamese historical and cultural productions, and popular Asian films from South Korea, China, and Japan. Dedicated children's content is also available. The content selection is refreshed every two months, curated around themes and moods suited to different holidays and travel seasons, providing an entertainment experience that is both refined and culturally engaging.

From the ground to the skies, Sun PhuQuoc Airways is steadily shaping its own identity, creating premium resort style journeys where every touchpoint begins with genuine care and culminates in a seamless, elevated, and emotionally fulfilling travel experience. 🌟

기장 레장남

“조종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보이지 않는 책임이
시작됩니다”

썸 푸꾸옥 에어웨이즈의 레장남 기장을 만난 곳은 푸꾸옥국제공항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운항을 마치고 막 도착한 그의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한 인상 뒤에는 약 20년 동안 하늘을 누비며 수천 시간의 비행을 책임져 온 베테랑 조종사의 경험과 묵직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 : 호 하인



만은 이들의 선망을 받는
직업이지만, 그만큼
혹독한 길이기도
한 조종사의 꿈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군 조종사 시험에도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합격하지 못했고, 심지어 치아 사이가 조금 벌어졌다는 이유로 탈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2002년, 어머니께서 손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베트남항공 조종사 모집 신문 기사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원서를 냈고, 운 좋게도 2002년 말 베트남항공 예비 조종사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을 바꾼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평온한 비행 뒤에는 어떤 준비와 책임이 숨어 있나요?

사실 평온한 비행은 이륙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조종사들은 비행 전 기상 상황과 난기류 발생 가능성, 뇌우 구역, 항공기 정비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또한 운항 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함께 브리핑을 진행하며 운항 계획과 대응 절차를 사전에 공유합니다.

조종실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중에는 악천후나 예기치 못한 기술적 문제, 승객의 건강 이상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몇 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 판단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종사는 언제나 냉정함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가장 안전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은 무엇을 찾아갔고, 또 무엇을 가장 값진 선물로 안겨주었나요?

아마 가장 많이 내어준 것은 시간, 특히 젊은 시절의 시간일 것입니다. 조종사가 되기까지 긴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고, 업무 강도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스스로 조율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도 얻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은 물론, 무엇보다 큰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조종사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순간만으로도 지금까지의 노력과
희생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가까운 비행 인생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비행이
하나 있습니다. 말기 암을 앓고
계신 아버지와 두 자녀가 함께
탑승했던 항공편이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지막 소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했고, 항공편은 예정대로
운항했습니다. 탑승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조종사로 일하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승객이 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떠나고, 또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품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 저는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 뒤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항공기를
운항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항공업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셨는데,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전문성과 직업
정신을 높이 평가해 온 동료들로부터
합류 제안을 받았고, 그들에 대한
신뢰가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합류한 이후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승객 경험의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화였습니다.
체크인 직원과 공항 서비스 직원,
객실승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이 높은 열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승객의 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는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먼저 도전하고, 이미 있는
것은 더 나은 방식으로 완성한다’ 는
썬그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고객 경험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항공업계에서 승객들이 한 항공사를 기억하고 다시 찾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항공업계에서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
가치이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 위에 승객의 신뢰를 쌓고 다시 찾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꼽자면
저는 ‘정시성’ 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승객들은 단지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한
항공편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비, 공항 운영, 운항 승무원을
비롯한 수많은 구성원의 노력과 협업이
있습니다. 공항 서비스 직원들은 항공편
운항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정비팀은
항공기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운항 승무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정시 운항은 단순한 운영 지표가 아니라
승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곧 승객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 역시 이러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더욱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하늘과 함께해 오셨는데, 지금도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마 항공기가 추력을 높이며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수많은
비행을 경험한 지금도 그 순간만큼은 처음
조종간을 잡았던 날처럼 설레곤 합니다.
엔진의 힘이 점점 커지고 기체가 지면을
떠올라 하늘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여전히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 동안 하늘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일부이자,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CAPTAIN LE GIANG NAM:

“Behind the cockpit door are invisible pressures”



What first inspired you to become a pilot, a profession admired by many but known to be incredibly demanding?

I started dreaming of flying when I was in tenth grade. I applied for military pilot training several times but was unsuccessful. At one point, I was even rejected because my teeth were slightly spaced apart.

I met Captain Le Giang Nam of Sun PhuQuoc Airways at Phu Quoc International Airport shortly after he completed a flight from Hanoi to Vietnam's Pearl Island. Behind his composed smile and polished demeanor is a pilot who, at 42, has spent nearly two decades in the skies and accumulated thousands of hours in the cockpit.

BY HO HANH

My path into aviation began with a newspaper recruitment notice from Vietnam Airlines that my mother clipped out and mailed to me in 2002. I quietly submitted an application and was fortunate enough to be accepted into Vietnam Airlines' cadet pilot program later that year. It was the biggest turning point of my life.

What really lies behind the cockpit door of a smooth and uneventful flight?

In reality, a smooth flight begins long before takeoff. Before every flight, we study weather forecasts, potential turbulence, storm activity, aircraft technical status, and then conduct briefings with the flight crew and cabin crew to align on operating procedures.

Once seated in the cockpit, the greatest pressure comes from knowing that hundreds of passengers behind that door are placing their trust in us.

Unexpected situations can arise at any time, whether adverse weather, technical issues, or medical emergencies involving passengers. Sometimes decisions must be made within seconds, but those decisions carry responsibility for many lives.

What has this profession taken from you, and what has it given you in return?

Perhaps the greatest sacrifice has been time, especially during my younger years. Pilot training is a long journey, the job is demanding, and family time is not always something we can control.

In return, the profession has given me a stable life and, more importantly, a deep sense of pride. The thing that makes me happiest is seeing my children proudly tell others that their father is a pilot. That alone makes every sacrifice worthwhile.

After nearly 20 years in aviation, is there a particular flight that has stayed with you?

There is one flight I will probably never forget. It was carrying a father and his two children. The father had terminal cancer. His condition was extremely fragile, but his final wish was to return home one last time.

The family signed the necessary documents, and the flight proceeded as planned. When he boarded, he was still conscious. But during the journey, he passed away.

After years in this profession, you come to understand that not every passenger boards an aircraft for a vacation or a business trip. Some carry new plans and dreams, while others carry the final hope of their lives. Experiences like that remind a pilot that behind every seat is a personal story, and that we cannot become indifferent to either our work or our passengers.

After many years in aviation and experience across different airlines, what made you decide to begin a new chapter with Sun PhuQuoc Airways?

The first reason was the people. I received invitations from former colleagues whom I deeply respected for both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and their dedication to the profession.

Since joining the airline, what has stood out most to me is the constant desire to improve every detail of the passenger experience. From check in staff and ground personnel to cabin crew, everyone is genuinely committed to ensuring passengers feel cared for throughout their journey. That spirit aligns closely with Sun Group's vision: to pioneer what others have not done or do not dare to do, and when something has already been done, to do it better.

In such a competitive aviation market, what do you think truly makes passengers remember an airline and choose to return?

In aviation, safety will always be the number one priority, and that will never change.

But if I had to identify another factor that builds trust and encourages loyalty, it would be punctuality. Passengers often see only an on time

flight. What they do not see is the entire system working behind the scenes. Ground teams must prepare thoroughly, engineers must keep aircraft operating reliably, and flight crews must manage every journey professionally and efficiently to ensure both safety and punctuality.

I believe punctuality is also a way of respecting passengers' time, and it is something Sun PhuQuoc Airways places great importance on.

After nearly two decades in the skies, what moment still moves you the most?

It is probably the moment when the engines power up and the aircraft lifts off the runway. Even after all these years, that feeling still excites me as much as it did on my very first flight. After nearly two decades, the sky is no longer simply my workplace. It has become part of my lif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





기내 인테리어 표준화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기내 인테리어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객 경험 향상을 넘어, A330 광동체 항공기를 활용한 장거리 노선 확대와 향후 보잉 787-9 도입을 대비한 서비스 기반 구축의 일환입니다.

협동체 항공기 표준화

A281 항공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협동체 항공기 기내 인테리어 재구성은 빠른 운항 확대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도차이나의 우아함 (Élégance Indochine)’을 구현하는 고객 경험 중심의 표준화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세련미와 동양의 품격이 어우러진 이 콘셉트를 바탕으로,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단순한 상품 개선을 넘어 고객 여정 전반에 걸쳐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좌석 간격을 29~31인치까지 넓혀 한층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영국의 Hawk Infinity 좌석을 적용해 인체공학적 설계와 USB 충전 포트 등 편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경량화된 구조를 통해 쾌적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승객의 편안한 비행 경험은 물론, 연료 효율 향상과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설계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최대 15도 리클라이닝 기능과 238mm(9.37인치)까지 확장되는 레그레스트를 적용해 한층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비행 중에도 프리미엄 리조트에 머무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며,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가 추구하는 ‘휴양형 항공’의 가치를 구현합니다.

'하늘 위의 리조트'를 완성하는 소재와 경험

이번 기내 인테리어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소재와 미학의 조화에 있습니다. 전 좌석에는 스위스산 프리미엄 천연 소가죽을 적용하고, 오크와 골드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시그니처 컬러를 더해 통일감 있는 공간 경험을 구현했습니다. 승객들은 어느 항공편에 탑승하더라도 ‘인도차이나의 우아함(Élégance Indochine)’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라는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의 브랜드 철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죽은 최신 광물 무독질 공법을 적용해 최대 6년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천연 가죽 특유의 부드러움과 우수한 통기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항공기 객실 안전 기준인 FAR 25.853 난연 규격을 충족하고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승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톤의 컬러 팔레트와 라 페스타만의 시그니처 향을 더해 기내 공간을 ‘하늘 위의 리조트’로 완성했습니다. 객실 곳곳의 세심한 디테일은 승객이 비행 내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오는 2026년 10월까지 협동체 항공기 전 기종의 기내 인테리어 표준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선에서 일관된 브랜드 경험과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A330,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새로운 전환점

기내 서비스와 고객 경험의 표준화를 마친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에어버스 A330 광동체 항공기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2026년 7월, 자사 서비스 기준과 브랜드 콘셉트에 맞춰 새롭게 구성된 A330 항공기 2대를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베트남 항공청의 항공운항증명(AOC) 취득을 위한 검정 및 운항 시연 절차를 거친 뒤, 2026년 9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항에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푸꾸옥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호주, 몽골, 오만, 체코, 튀르키예 등 장거리 국제시장과 직접 연결되며,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의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도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A330 도입은 단순한 장거리 운항 역량 확대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기내 경험을 의미합니다.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처음으로 프리미엄 클래스를 선보이며 보다 여유롭고 편안한 여행 옵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180도 완전 평면형 좌석을 적용해 장거리 비행에서도 최상의 휴식과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협동체 항공기 표준화와 광동체 항공기 도입을 통해 ‘Rise to the World’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A330 기단 확충은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향후 보잉 787-9 드림라이너 도입에 앞서 운영 체계와 고객 경험을 고도화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2026년 2월 보잉과 총 225억 달러 규모의 787-9 드림라이너 4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첫 항공기는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





Standardizing fleet interiors

Sun PhuQuoc Airways (SPA) is taking swift and decisive steps to standardize interiors across its fleet. This is not merely an upgrade of onboard facilities, but a strategic investment in service foundations as the airline prepares to expand into long haul international markets with its Airbus A330 widebody fleet and, in the future, Boeing 787-9 Dreamliners.

STANDARDIZING THE NARROWBODY FLEET

The reconfiguration of the airline's entire narrowbody fleet, with aircraft A281 serving as the centerpiece of the program, marks a transition from rapid operational deployment to a standardized onboard product built around the concept of *Élégance Indochine* — a refined fusion of French sophistication and Eastern elegance. As a full service airline, SPA is not only enhancing its product offering

but also establishing a consistent identity across its fleet.

The Economy cabin has been upgraded with seat pitches expanded to 29–31 inches and fitted with Hawk Infinity seats from the United Kingdom. Featuring an ergonomic design, integrated USB charging ports, and an optimized lightweight structure, the seats improve passenger comfort while contributing to lower fuel consumption and reduced CO₂ emissions.

Meanwhile, the Business cabin delivers a noticeably more relaxing experience with seats reclining up to 15 degrees and leg support extending to 238 mm (9.37 inches), offering a level of comfort comparable to that found in a premium resort environment.

MATERIALS AND DESIGN DEFINE THE “RESORT IN THE SKY” CONCEPT

A highlight of the upgrade is the consistency of materials

and aesthetics throughout the cabin. All seats are upholstered in premium full grain leather imported from Switzerland and paired with a signature color palette featuring tones such as Ochre and Gold, creating a distinctive and recognizable identity. On every flight, passengers can experience the spirit of *Élégance Indochine* alongside SPA's philosophy of heartfelt service.

The leather is treated using advanced mineral tanning technology, ensuring durability of up to six years while maintaining natural softness and breathability. It also complies with FAR 25.853 flammability standards and contains no harmful compounds, ensuring the highest levels of safety for passengers.

Combined with warm color tones and the signature La Festa fragrance, the cabin has

been designed as a true “Resort in the Sky” where every detail contributes to a sense of comfort, relaxation, and attentive care.

According to the airline's roadmap, the standardization of interiors across the entire narrowbody fleet will be completed by October 2026, creating a consistent onboard environment throughout the network.

A330: A STRATEGIC BRIDGE TO INTERNATIONAL EXPANSION

Building on this standardized platform, SPA is preparing for its next phase of growth with the introduction of Airbus A330 widebody aircraft.

In July 2026, Sun PhuQuoc Airways is expected to receive its first two A330 aircraft, already configured and branded according to the airline's standards, for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operational demonstrations required for Air Operator Certificate approval from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Vietnam.

The aircraft are scheduled to enter service in September 2026, opening direct connections between Phu Quoc and long haul international markets including Kazakhstan, Russia, Uzbekistan, Australia, Mongolia, Oman, the Czech Republic, and Türkiye.

Beyond increasing long haul operating capability, the A330 will introduce a new onboard standard. For the first time, Sun PhuQuoc Airways will offer a Premium cabin, providing passengers with an additional level of comfort alongside a Business cabin featuring fully flat 180 degree seats optimized for intercontinental travel.

From standardizing interiors across its narrowbody fleet to deploying widebody aircraft, SPA is steadily bringing its “Rise to the World” strategy to life through a clear and methodical approach.

The introduction of the A330 also represents an important step in operational and service preparation ahead of the arrival of the airline's first Boeing 787-9 Dreamliners. In February 2026, SPA signed an order with Boeing for 40 Boeing 787-9 aircraft valued at US\$22.5 billion, with deliveries expected to begin in 2031. 🌟



서울과 마주한 순간

글: 응우옌 투 쩡



매 비행이 끝난 뒤,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SPA)는 새로운 여행지에서의 설렘과 잊지 못할 비행의 순간을 담아 보내주시는 승객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번 호에서는 SPA의 첫 한국 노선과 함께한 특별한 여정, 그리고 그 순간을 추억하는 한 승객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서울은 한 번도 낯선 도시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은 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를 사로잡았던 드라마 가을동화, 첫사랑, 겨울연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노랑게 물든 은행나무 길과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담긴 화면 속 서울은, 아직 가보지 못한 도시였지만 이미 익숙한 기억처럼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의 첫 한국 노선을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에는 늘 특별한 설렘이 깃들어 있습니다.

목에 리본 스카프를 단정하게 맨 객실승무원은 봄별 같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기내식에서는 고소한 캐슈넛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그 모든 서비스는 고객을 위한 형식적인 응대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천 미터 상공을 나는 항공기는 창밖으로 펼쳐진 새하얀 구름 사이를 유명하듯 나아갔고, 저는 꿈결처럼 편안한 여정 속에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신 무선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감성적인 발라드를 들으며 여행의 설렘을 차곡차곡 채워가다 보니, 어느새 마음은 낭만이 깃든 도시 서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서울의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잊고 지냈던 청춘의 설렘이 다시 마음속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와 화면 속에서만 만나온 도시를 직접 마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설레면서도 어딘가 포근한 감정이 가슴 한편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풍경이었습니다.

서울은 세련되고 질서정연한 도시였습니다. 정확하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반듯하게 이어진 거리, 질서 속에서 분주하게 흐르는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여유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자신만의 리듬을 따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듯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자연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길가와 공원, 이름 없는 골목까지 꽃들이 피어 있었고, 계절은 도시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이면서도 자연의 온기를 잃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유명한 명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조용한 풍경들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에서도 한옥마을은 오랜 시간을 품은 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곡선이 아름다운 기와지붕, 세월이 스며든 돌담과 나무 대문, 그리고 고요한 골목길,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은 깊이와 절제, 그리고 오랜 전통을 소중히 지켜온 도시의 품격을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서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잃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며칠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여운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떤 곳은 다녀온 뒤 곧 잊히고, 어떤 곳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서울은 제게 그런 도시였습니다. 🌻

TOUCHING Seoul

BY NGUYEN THU TRANG

After every flight, SPA is delighted to receive letters from passengers sharing their experiences as they explore new destinations. In this issue, we are honoured to present the story of a passenger on SPA's inaugural flight to Seoul in South Korea, a journey filled with memorable moments and emotion.

Seoul had never really been a stranger to me. The city had entered my youth long ago through love stories that captivated an entire generation, such as *Autumn in My Heart*, *First Love*, and *Winter Sonata*, with scenes awash in golden leaves and white snow.

Then one day, I arrived in Seoul on Sun PhuQuoc Airways' first flight to South Korea. Once again, it was those first impressions that left me lingering in emotion.

A lovely flight attendant, her scarf tied gracefully at the neck, greeted passengers with a smile as bright as a cherry blossom. A hot meal, fragrant with the aroma of cashews, was served with care, not in the manner of serving a customer, but with genuine warmth from the heart. Thousands of meters above sea level, the aircraft drifted gently through the white clouds beyond the window, carrying me to the Land of Kimchi on a journey as smooth as a dream. What delighted me most was the modern wireless entertainment system, where I could listen to Korean love songs and prepare my heart for a city filled with romance.

The moment the aircraft touched down, I felt an unexpected flutter of excitement, as though I had returned to my twenties. There was something extraordinary



about stepping into a place that had once existed only in my imagination, a feeling that was both exhilarating and tender.

The first thing that impressed me was Seoul itself. A city that feels modern, orderly, and sophisticated in every detail. From its efficient transportation system and spotless streets to its thoughtful urban planning and the way people move quickly without seeming rushed, everything flows with remarkable ease. It feels as though the city always knows exactly where it is going. Amid that modern rhythm, nature remains beautifully present. Flowers bloom everywhere: along the streets, in parks, and on quiet corners. Their beauty feels natural, generous, and full of life.

What made me love Seoul most, however, was not its famous attractions, but its quieter moments. In the middle of a modern metropolis, traditional hanok villages have been carefully preserved. Curved tiled roofs, stone walls, dark wooden gates, and peaceful alleyways create another side of Seoul, one that feels thoughtful, dignified, and deeply rooted in its identity. That is what makes Seoul so captivating. It is a city that has not abandoned its past in order to move toward the future.

The journey lasted only a few days, yet it left behind many lingering emotions. There are places we visit and forget. There are places we visit and remember. And there are places we fall in love with the moment we arrive. For me, Seoul is one of those places. 🌸

ACROSS the TABLE



LUXURY GROUP
MARRIOTT INTERNATIONAL

DINING SERIES

THE SOUL VIETNAM – 산천진미

A Celebration of Vietnamese Heritage, Culinary Artistry, and Human Connection

베트남의 유산을 기리며, 미식과 풍미로 깊은 교감을 나누는 여정

5-9 August, 2026 | 2026년 8월 5일 – 9일



JW MARRIOTT

PHU QUOC EMERALD BAY

EXPLORE MORE
자세히 보기



For more information or to make a reservation, please contact us at:
자세한 사항 또는 예약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dining.jwphuquoc@marriott.com | +84 76 699 5899

호텔에서 바로 탑승수속 가능한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

→ 푸꾸옥에서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호텔에서 바로 탑승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호텔에서 체크인과 탑승권 발급은 물론 수하물 위탁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4월 17

일부터 썬그룹이 운영하는 선셋 타운 내 호텔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상 호텔은 라 페스타 푸꾸옥, 큐리오 컬렉션 바이 힐튼과 뉴 월드 푸꾸옥 리조트를 비롯해 선셋 타운과 캄비치지역에 위치한 호텔에 투숙하는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 승객들입니다.

CHECK IN FOR YOUR FLIGHT RIGHT AT THE HOTEL

→ Sun PhuQuoc Airways passengers in Phu Quoc can now check in, receive boarding passes, and drop off their baggage directly at participating hotels within the Sun Group

ecosystem. The service, available from April 17, applies to La Festa Phu Quoc, Curio Collection by Hilton, New World Phu Quoc Resort, as well as other hotels in Sunset Town and Kem Beach. Two check in windows are available each day: from 7:00 a.m. to 8:30 a.m. for flights departing between 10:30 a.m. and 4:00

호텔 탑승수속 서비스는 항공편 출발 시간에 따라 운영됩니다.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오후 4시 이후 당일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p.m., and from 11:00 a.m. to 1:30 p.m. for flights departing from 4:00 p.m. onwards.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 호찌민-빈돈 직항 노선 취항

→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2026년 5월 5일부터 호찌민(SGN)과 빈돈(VDO)을 잇는 직항 노선의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노선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주 4회(월·

수·금·일) 운항되며, 남부 경제 중심지인 호찌민과 북부 대표 관광·경제 거점인 빈돈을 더욱 편리하게 연결할 예정입니다. 운항 일정은 승객의 편의를 고려해 구성되었습니다. 호찌민 출발편은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해 오후 5시 30분 빈돈에 도착하며, 빈돈 출발편은 오후 6시 10분에 출발해 오후 8시 30분 호찌민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 기준)

SPA LAUNCHES HO CHI MINH CITY - VAN DON ROUTE

→ Sun PhuQuoc Airways officially commenced its new direct route between Ho Chi Minh City (SGN) and Van Don (VDO) on June 15, 2026, operating four times a week on Mondays, Wednesdays, Fridays, and Sundays. Flights depart Ho Chi Minh City at 3:30 p.m. and arrive in Van Don at 5:30 p.m. Return flights leave Van Don at 6:10 p.m. and land in Ho Chi Minh City at 8:30 p.m. (local time).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 싱가포르 노선 취항

→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는 2026년 5월 20일부터 푸꾸옥-싱가포르 노선의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으며, 2026년 7월 25일 첫 취항과 함께 매일 1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노선 취항을 기념해 푸꾸옥-싱가포르 노선 항공권을 편도 179만 3,000동부터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해당 혜택은 첫 운항일로부터 1개월 동안 출발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또한 썬 푸꾸옥 에어웨이즈 이용객에게는 선월드 혼툼 케이블카 탑승권이

제공되며, 푸꾸옥 남부에 위치한 선그룹 계열 호텔, 레스토랑, 스파, 엔터테인먼트 시설 이용 시 최대 30%의 할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SPA TAKES OFF TO SINGAPORE

→ Sun PhuQuoc Airways officially opened ticket sales for its Singapore service on May 20, with the inaugural flight scheduled for July 25, 2026. The route will operate daily.

To celebrate the launch, one way fares on the Phu Quoc - Singapore route are available from VND 1,793,000 for flights departing within the first month of operation. Passengers will also receive complimentary Sun World Hon Thom cable car tickets and enjoy discounts of up to 30% on accommodation, dining, spa, and entertainment services within the Sun Group ecosystem in South Phu Quoc.



썬 시그니처 멤버십 프로그램 출시

→ 선그룹은 6월 13일,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썬 시그니처(Sun Signature)'의 회원 가입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하나의 시그니처, 무한한 특별함(One Signature,

Endless Privileges)'을 콘셉트로 한 선 시그니처는 항공, 호텔, 리조트, 레저,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의료, 부동산, 금융에 이르기까지 선그룹 전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회원들은 선그룹 생태계 전반에서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전용 혜택을 통해 더욱 풍성한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썬 시그니처는 선그룹이 선보이는 최초이자 유일한 통합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적인 항공·여행 및 로열티 솔루션 기업 아마데우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아마데우스는 업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로열티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플랫폼을 도입한 것은 고객 경험 전반에 대한 선그룹의 장기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여정의 모든 순간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로열티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썬 시그니처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프리미엄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SUN GROUP LAUNCHES SUN SIGNATURE LOYALTY PROGRAM

→ On June 13, Sun Group officially opened registration for its Sun Signature loyalty program, themed "One Mark - Ten Thousand Privileges." The program allows customers to earn reward points and enjoy exclusive benefits across the group's ecosystem, spanning aviation, hospitality, entertainment, healthcare,

real estate, and finance.

Sun Signature is Sun Group's first and only integrated loyalty program, developed on the Amadeus platform, a global leader in aviation, travel, and loyalty solutions. Widely regarded as the "Ferrari of loyalty systems," the platform reflects Sun Group's long-term commitment to establishing a new loyalty benchmark in Vietnam, one where customers are not only rewarded, but also recognized,

remembered, and cared for throughout their entire journey across the Sun Group ecosystem. Guided by this vision, Sun Signature offers more than a collection of exclusive privileges. It is designed as a lifestyle platform for a premium community of members, bringing together distinctive experiences and personalized benefits under a single signature.



바이짜오(혼돈)에 자리한 아스피라 타워(열망의 탑)는 썬그룹이 총 1조 3,000억 동을 투입해 개발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바다를 향해 돛을 활짝 펼친 듯한 실루엣으로 설계된 이 건축물은 높이 220m, 연면적 약 20,00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세계적인 건축 스튜디오 10디자인을 비롯해 아랍, 오레콘, 투G 등 글로벌 설계·엔지니어링 그룹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곳은 ‘천만 달러 뷰’로 불리는 객실을 중심으로, 미식 레스토랑과 바, 그리고 스카이 클럽까지 갖춘 프리미엄 복합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Perched on Bai Trao Beach on Hon Thom Island, Aspira Tower stands as a bold new landmark developed by Sun Group with a total investment of VND 13 trillion. Inspired by the image of sails billowing toward the open sea, the 220-metre tower rises from a 20,000-square-metre podium and was designed by 10 Design in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ly renowned firms including Arup, Aurecon, and TwoG. The development will bring together a luxury hotel with sweeping ocean views, alongside premium restaurants, bars, and an exclusive sky club overlooking the island's southern coastline. 🌅

The Cathedral of Dream Weddings

꿈꿔온 웨딩을 위한 성전
📍 ASCOTT TAY HO HANOI

Set along the shores of West Lake, where the quiet elegance of old Hanoi converges with the energy of modern living, Ascott Tay Ho Hanoi offers a sanctuary for dream weddings — where timeless architecture, sophisticated spaces, and attentive service unite to craft unforgettable moments for a couple's most cherished day.

고즈넉한 옛 도심의 정취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지는 서호의 풍경 속, 애스콧 테이호 하노이는 꿈꿔온 웨딩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미와 품격 있는 공간, 세심한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더욱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A: 58 Tay Ho, Ha Noi
주소: 하노이시 페이호 58
E: enquiry.tayho@the-ascott.com
이메일: enquiry.tayho@the-ascott.com
T: +84 98.891.9958
전화: +84 98.891.9958

신규 노선
푸꾸옥
싱가포르

판매 시작 | 첫 운항
2026년 5월 20일 | 2026년 7월 25일

운항 스케줄

편명	운항 노선	운항 횟수	출발	도착
9G721	PQC - SIN	매일 운항	10:35	13:20
9G720	SIN - PQC	매일 운항	14:20	15:05